

청소년 기후환경 정책연대 세미나

기후위기 시대 청소년 활동과 정책참여의 방향

- 일 시 : 2022년 12월 21일 (수), 14:00 ~ 16:20
- 장 소 : 보라매청소년센터
- 개최방식 : 현장 개최, YouTube 중계



주 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주 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부전여성청소년재단 산울림청소년센터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고양시청소년재단 성사청소년문화의집



목 차

1. 기후위기 시대 청소년 활동 및 정책 참여 다각화 방안 1
황 세 영 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없지만,
지속가능한 청소년 환경 참여 활동을 위해 중요한 것” 25
손 서 연 (보라매청소년센터)
3. 기후위기 시대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31
박 현 성 (충청남도청소년탄소중립정책단)
4.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청소년의 참여 37
이 선 경 교수 (청주교대 과학교육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5. 지자체 탄소중립정책과 청소년활동 지원 43
김 미 수 의원 (고양특례시의회)
6. 지역사회 청소년 기후 활동 활성화 51
이 상 진 본부장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운영본부)
7. 지역사회 환경교육-청소년 활동 연계 57
김 인 호 센터장 (국가환경교육센터)
8. 청소년기관 ESG경영으로 재구조화 하다 65
윤 여 승 관장 (천안태조산청소년수련관)

기후위기 시대 청소년 활동 및 정책 참여 다각화 방안

기후위기 시대

청소년 활동 및 정책 참여 다각화 방안

황세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미래생태연구실)

※ 본 발표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2년 기본과제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추진방안”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됨.

K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서울녹색미래정상회의
청소년 선언문 「청소년의 목소리가 모두의
행동으로」



어른들은 이 세상을 알아가기에도 바쁜 우리
청소년들이 왜 나서는지 묻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기후 생태위기의 모든 피해는 우리 세대가 겪어야
할 가까운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행동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목소리에 어른들이 응답해야 합니다.

[중략]

우리는 다함께 움직여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다같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청소년 기후 환경 정책연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Korea Youth Work Agency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Boramae Youth Center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산울림청소년센터
Sanullim Youth Center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고양시청소년재단
 성사청소년문화의집

2022년 활동 경과

회차	일자	주요내용
1	2022년 3월 15일	기관별 기후환경 분야 청소년사업 운영 현황 공유 정책연대 세부 추진계획 논의
2	2022년 4월 19일	청소년 시설(기관)의 탄소중립 전략: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초청 강의)
3	2022년 4월 26일	제43회 청소년정책포럼 참석
4	2022년 5월 25일	사례학습: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및 국가환경교육 센터 프로그램
5	2022년 6월 29일	탄소중립 청소년 정책의제 발굴 워크숍 - 사례학습: 해외정책, 기관별 사례 - 주제별 토의: 청소년기관 및 참여 분과
6	2022년 7월 26일	정책의제별 심층 토의(청소년 활동, 시설, 기관운영, 정책참여)
7	2022년 8월 31일	청소년기관 ESG 실천현황 파악 및 정책 의견수렴

목차

01 | 서론: 기후위기와 청소년 권리

02 | 국내외 정책 현황

03 | 청소년 기후변화 인식조사

04 | 청소년 탄소중립 정책참여 실행연구

05 | 정책 제언

01

서론: 기후위기와 청소년 권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후위기 시대의 청소년 권리 보장

기후위기에 대한 국내외 대응

- 1990년대: 기후변화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2015년 파리기후협약: 모든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과
- 2018년 IPCC 보고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로 억제하기 위한 탄소중립 필요
- 2020년 대한민국 정부 탄소중립 선언

청소년 권리의 확장

- 탄소중립 정책 추진은 정부, 산업, 시민 등 모든 주체의 참여와 정치, 사회, 경제 등 전 영역에서의 대전환 필요
- 기후위기시대를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청소년 권리 보장 필요
- 청소년의 삶을 둘러싼 다양한 영역(교육, 활동, 참여, 안전, 복지, 일, 자립 등) 포괄
- 청소년 기본법: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 보장, 사회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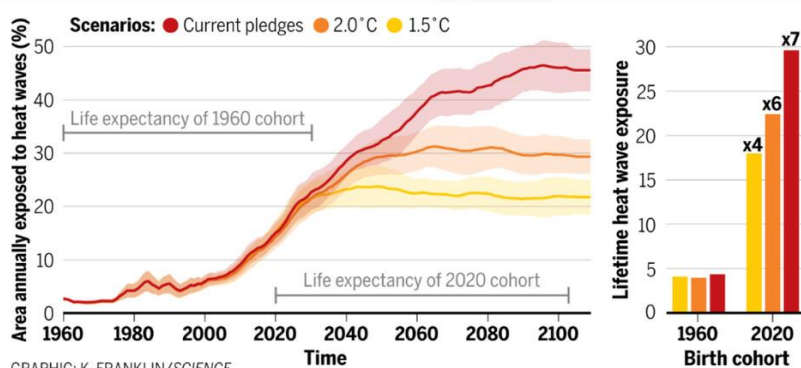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기후위기는 아동청소년 권리의 위기

기후 위기 영향의 세대 간 차이

- 2020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현재 각 국가에서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한다는 가정 하에서도 1960년에 태어난 세대에 비해 7배 수준의 폭염을 겪을 것으로 예측
- 아동권리보장의 관점: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조치를 위한 기후 기금 조성, 기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여 보장, 웰빙과 회복력 향상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GRAPHIC: K. FRANKLIN/SCIENCE

* 출처: 한겨레(2021. 9. 27.) 기후 위기, 2020년생은 1960년생보다 폭염 7배 많이 겪을 것.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12891.html#csidxb6d2b01afa03b879c01864d65b41b3f> (검색일: 2022. 10. 17)

* 원출처: Wm Thierry et al. (2021). Intergenerational inequities in exposure to climate extremes, Science, 374(6564), pp. 158-160.

청소년 기후 행동

청소년이 주도하는 변화

출처: Red Cross Red Crescent, 2021

인식	행동	응호
• 기후변화의 영향 이해 • 일상생활, 지역, 미래에 미치는 영향	• 기후 위험을 줄이기 위한 회복력(resilience) • 주거, 교통, 도시, 산업, 거버넌스 등에 영향력 행사	• 목소리 내기,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 캠페인, 자치활동, 정책 제안 등

주요 이슈

- 기후위기 피해의 당사자이자 권리 주체로서 청소년의 사회적 역할 규정 필요: 행위 주체성(agency) 및 권한 강화(empowerment)의 경험 중요
-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 청소년이 상상하는 탄소중립 미래는 무엇인가?
- 다양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보장하고 청소년 기후 행동의 영향력 확산을 위한 지원 필요

02 국내외 정책 현황

KER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 추진 현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및 이행과정에서의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취약계층 피해 최소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통해 녹색성장 달성
- 산업 전환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의 노동자와 지역을 배려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추구
- 모든 사회구성원이 공감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 협력, 교육의 역할 강조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 국가 및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위원회 구성

제3조(기본원칙) 1.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

제5조(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③ 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1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에 관한 사항

제51조(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언 플랫폼을 통해 제언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⑤ 정부는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청년 기후중립 시나리오	청소년 기후행동단체의 요구
비전	적응적 감축에서 능동적 대응으로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	회복력있는 지구, 일상을 지키는 사회, 희망을 꿈꾸는 삶	기후 위기로 어느 누구의 삶도 배제되지 않기 위하여, 평범하고 안전한 일상, 당연하게 지켜져야 하는 존엄한 삶을 위하여
목표	2050 탄소중립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2040 기후중립(1.5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61%, 2040년까지는 97% 감축)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70% 이상 감축
목표 수립의 기반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0 달성	IPCC 보고서에 따라 한국에 할당된 탄소예산의 범위 고려	기후 정의(청소년의 생존과 권리)
주요 내용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 피해 산업/노동자/지역 보호	일자리 전환 대상을 위한 보상체계 및 사회적 안전망 마련	- 기후 정의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회 구조 전반의 정의로운 전환 실현 - 청소년, 청년, 노동자 등을 권리주체로 인정 - 기후 위기 적응 및 재난 대책 수립

교육 정책 현황: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연계 필요

기후변화 · 환경교육 강화

■ 교육기본법 개정

제22조의2(기후 변화환경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실시하여야 한다.

■ 학교 환경교육 의무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디지털 전환, 기후 · 생태환경 변화 등에 따른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 및 자아의 학습과 삶에 대한 주도성을 강화한다.

■ 교육청별 조례 제정 및 중장기 계획 추진: 교육과정 의무편성, 탄소중립 실천지원, 채식급식, 동아리, 지역사회 연계 등

학교-사회 환경교육 연계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환경부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21~2025)
- 환경교육 도시 및 사회환경교육기관 확산을 통해 지역 차원의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 광역 · 기초환경교육센터 60개소 운영: 서울시 구로구(구립공동청소년문화의집), 서대문구(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영등포구(문래청소년센터), 안산시(경기도 청소년수련원), 부천시(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환경교육센터

청소년 참여 활동 사례

사례 특성

- 학교, 청소년 기관(시설), 민간단체, 청소년활동가 단체 등, 청소년 주도적 활동의 확산
- 개인 실천/자원 순환 주제에 치중
- 청소년 시민성, 사회 참여 접근 부족

청소년 기후행동 지원을 위한 과제

- 제로웨이스트에서 기후 정의까지 청소년 기후행동의 다양성
- 참여 역량 개발: 청소년의 관심과 흥미, 효능감, 의사결정 권한
- 기관·단체 협력을 통한 청소년 참여 공간의 확장

실천 분야	청소년 참여 활동 사례	참여 유형
에너지	• B고등학교: 에너지 동아리 정책제안, 토론회	학교 교육과정
건물	• B고등학교: 학교 전기에너지 사용실태 분석	학교 자치활동
수송	• H청소년행동: 대중교통 이용 실천	개인 실천
생태계 (산림, 해양 등)	• A중학교: 나무심기 • F협동조합, G청소년교육단체: 해양 쓰레기 • F협동조합: 미디어 활용 식물도감 만들기	교육 활동, 사회 참여 활동
자원순환	• B고등학교: 친환경 업사이클링 활동, 탄소중립 실천 최고반, 지구환경자킴이 • C청소년센터, D청소년문화의집, E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F협동조합: 제로웨이스트 활동	개인 실천, 봉사 활동, 사회참여 활동
농업	• A중학교: 퍼머컬처 • E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친환경 농산물 장터 • B고등학교, F협동조합: 텃밭 활동	교육 활동
축산업, 채식, 동물권	• A중학교: 채식 경험 • E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비건 카페 메뉴 • H청소년행동: 비건 실천, 가족공예 수업 거부	개인 실천, 교육 활동, 일 경험
기후 정의	• A중학교, H청소년행동: 기후 위기 시위 참여 • B고등학교: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인권 문제 • F협동조합: 플라스틱 제로 발걸음(피해 현장 방문)	학교 교육과정, 국제교류 활동, 정치 참여, 사회 참여
기후 변화 적응	• H청소년행동: 멸종위기 종을 위한 '차레'	사회 참여

유럽의 청소년 기후행동 지원: 참여 구조화, 조직화 지지

EU 프로그램

- 청(소)년 기후협약 대사로서 EU에 자문, EU청년전략에 기후의제 주류화 진행
- (Teens4Green) '정의로운 전환' 지역 청소년 기후 행동 지원
- (IYES) 6개국 지자체 시범사업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 참여기구 조직화** 지원
- (유로트립) 8개국 청소년위원회 조직 및 국제네트워크 지원

국가 및 지자체 기후 정책 참여

- (덴마크) 기후에너지산업부 산하 자문기구로 **청년기후위원회** 운영, 다양한 영역의 배경을 지닌 청년들로 구성, 청년들과의 소통 및 정부 정책에 권고안 전달
- (네덜란드) 국가기후협약 구상, 이행, 평가 단계에 **청소년단체**가 청소년 대표로 참여, 청소년단체 간 협의 및 대표 선출, 지자체 에너지 전환 전략에 청소년 대표성 보장 장치 마련.
- (오스트리아) **연방청소년위원회**에서 기후청(소)년위원회 조직 및 운영

교육 및 청소년 기관 차원의 접근

- (영국) **교육기관 전체**의 탄소중립 목표 및 중장기 실행 전략 제시
- (아일랜드) 청소년 기후 행동과 결합한 **청소년활동의 개념 및 기관의 역할** 정립

03

청소년 기후변화 인식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설문조사 개요

조사대상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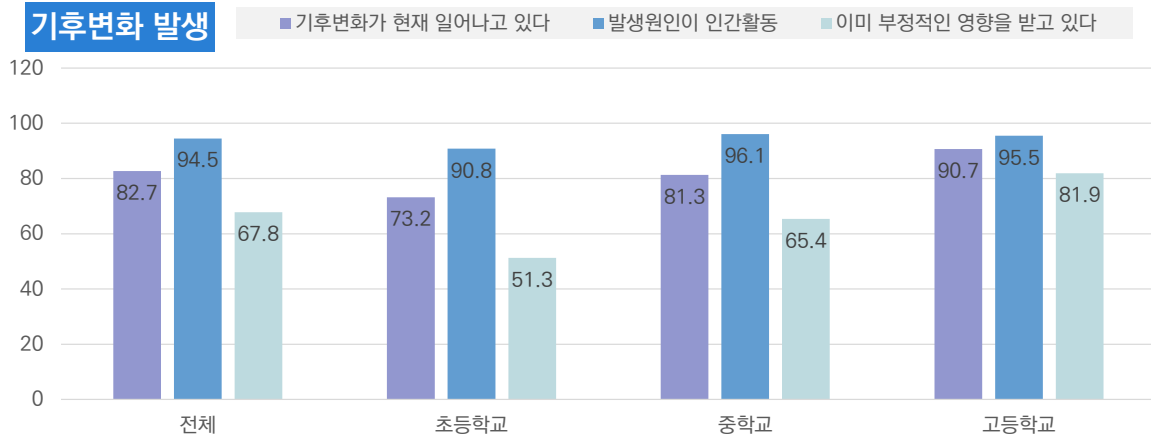
- 초5~고3학생 3,024명

구분	빈도	비율
전체	3,024	100.0
성별	남자	48.3
	여자	51.7
학교 급	초등학교	25.2
	중학교	38.2
	고등학교	36.6
권역	서울	15.8
	경기/인천	33.3
	강원/충청	14.4
	경상	24.4
	전라/제주	12.0

설문 조사 항목

영역 (문항 수)	항목(문항 수)
사회인구학적 배경(3)	- 성별(1) - 학교 급(1) - 거주지역(1)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27)	- 기후 변화 발생 관련 인식(1) - 기후 변화 발생 주요 원인(1) - 기후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1) - 기후 변화 문제 인식 정도(5) - 기후 변화 관련 용어 및 이슈(7) - 기후 변화에 관한 정보 경로(매체, 장소) 유형(2) - 기후 변화에 관한 감정 및 느낌(7) - 기후 변화에 관한 교육, 대응, 문제해결 전망(3)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 (24)	- 기후 변화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생활습관(1) -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20) - 기후 변화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사항(1) - 기후 변화 관련 문제해결 참여 경험 및 이유(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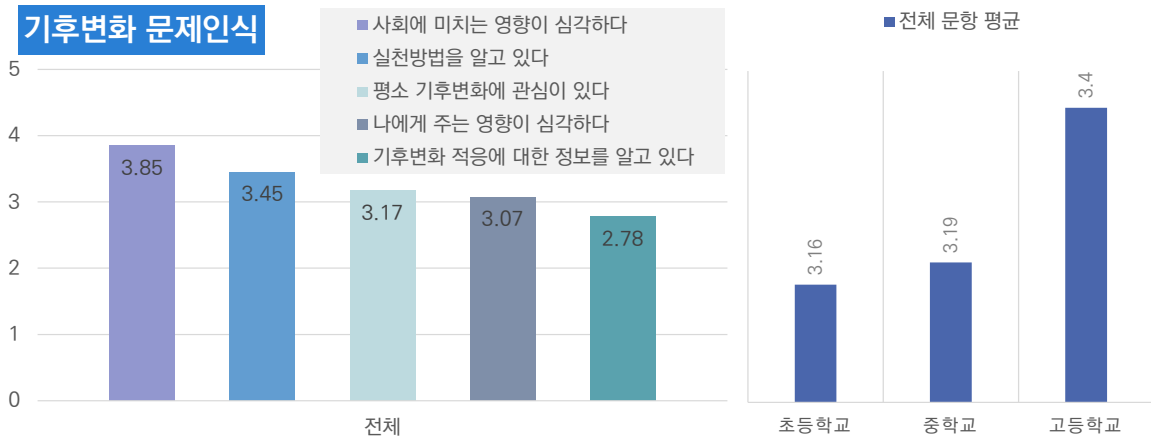
기후변화 발생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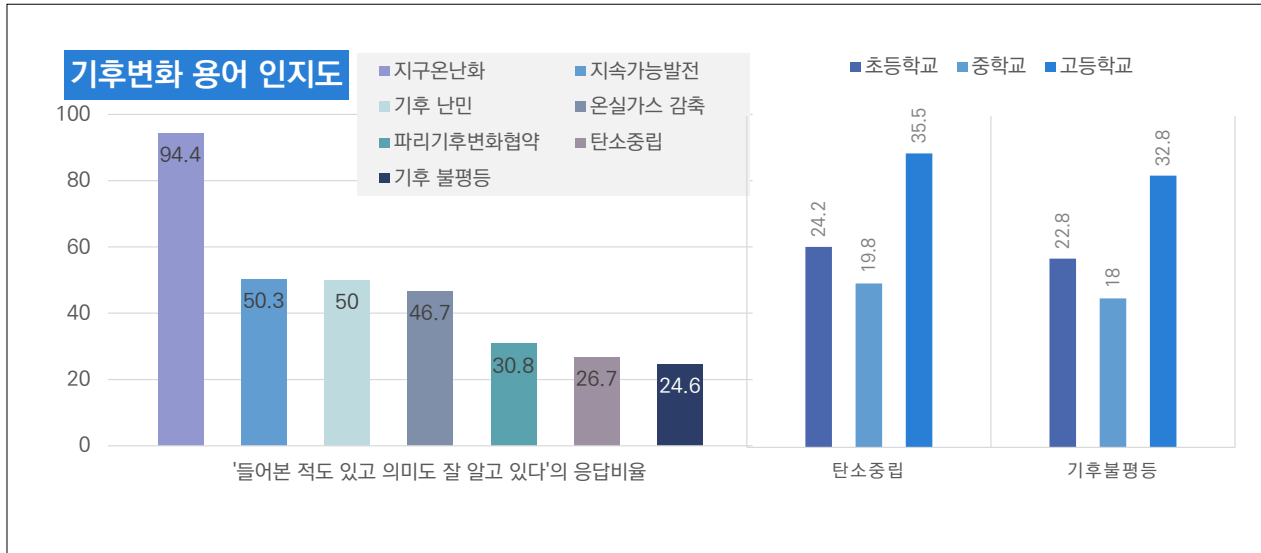
- 기후변화 발생 현상에 대한 인식 높음.
- 인간활동이 발생원인 > 현재 일어나고 있다 > 이미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고등학교 > 중학교 > 초등학교 순으로 높게 나타남.

기후변화 문제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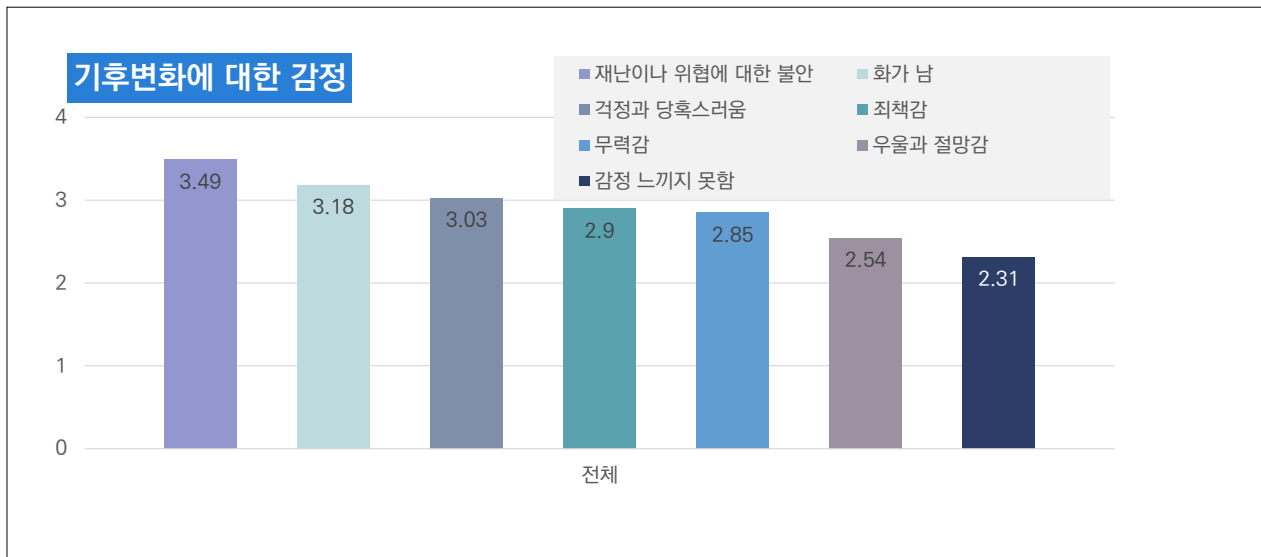
조사 결과

- 기후변화를 실제 문제로 인식하는 정도와 관련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 > 실천방법을 알고 있다 > 평소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다 > 나에게 주는 영향이 심각하다 >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고등학교 > 중학교 > 초등학교 순으로 높게 나타남.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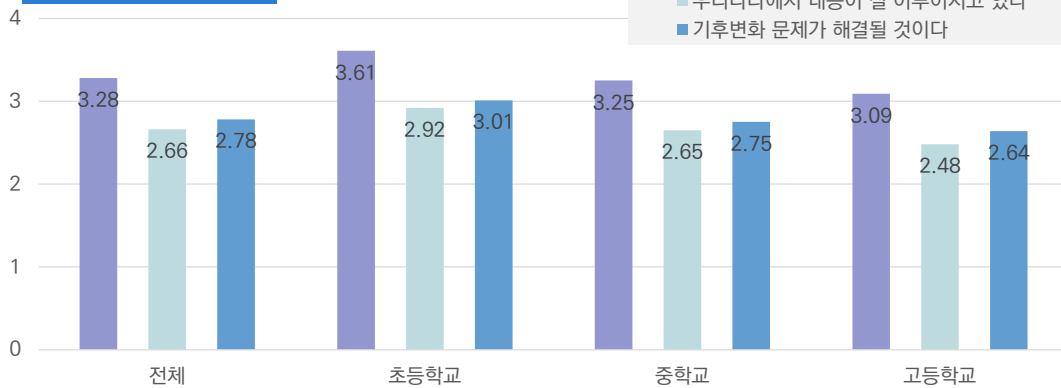
- 기후변화와 관련된 용어를 ‘들어본 적도 있고 의미도 잘 알고 있다’의 응답 비율은 지구 온난화 > 지속가능발전 > 기후 난민 > 온실가스 감축 > 파리기후변화협약 > 탄소중립 > 기후 불평등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탄소중립과 기후불평등에 대한 인지도는 고등학교 > 초등학교 > 중학교 순으로 높게 나타남.



조사 결과

-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은 재난이나 위협에 대한 불안 > 화가 남 > 걱정과 당혹스러움 > 죄책감 > 무력감 > 우울과 절망감 > 감정 느끼지 못함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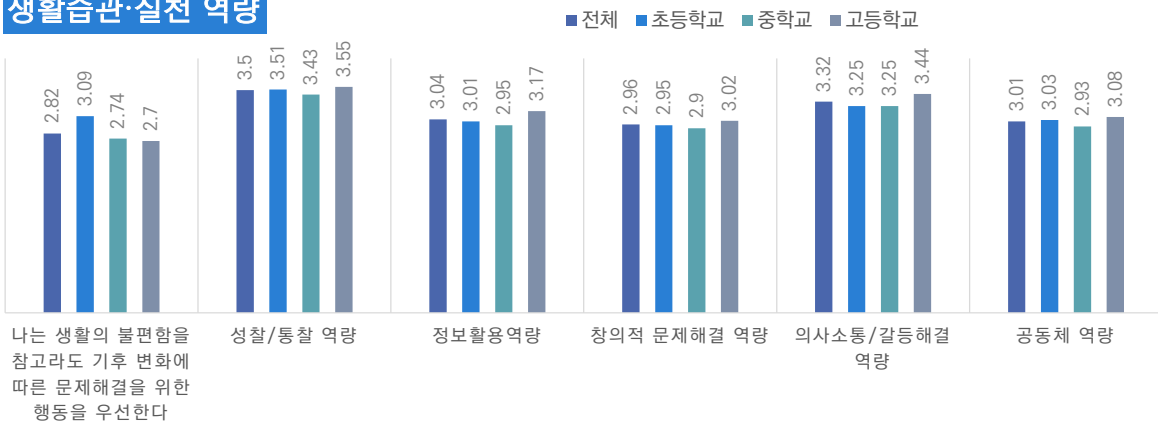
기후변화 대응·전망



조사 결과

- 기후변화 대응·전망과 관련하여 기후변화 교육(3.28)에 비해 우리나라의 대응(2.66)과 기후변화 문제 해결 전망(2.78)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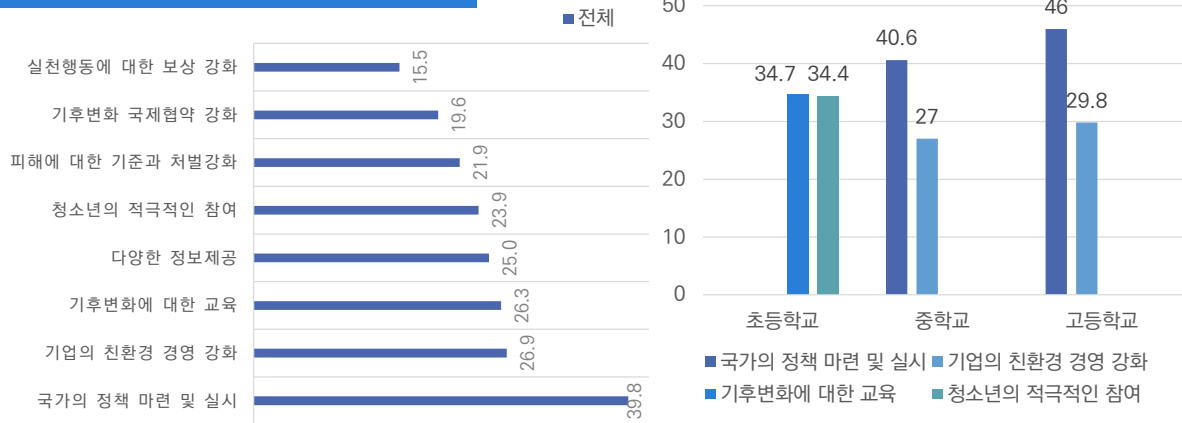
생활습관·실천 역량



조사 결과

-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생활습관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남.
- 실천 역량은 성찰/통찰 역량 > 의사소통·갈등해결 역량 > 정보활용역량 > 공동체 역량 >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고등학교 > 초등학교 ≥ 중학교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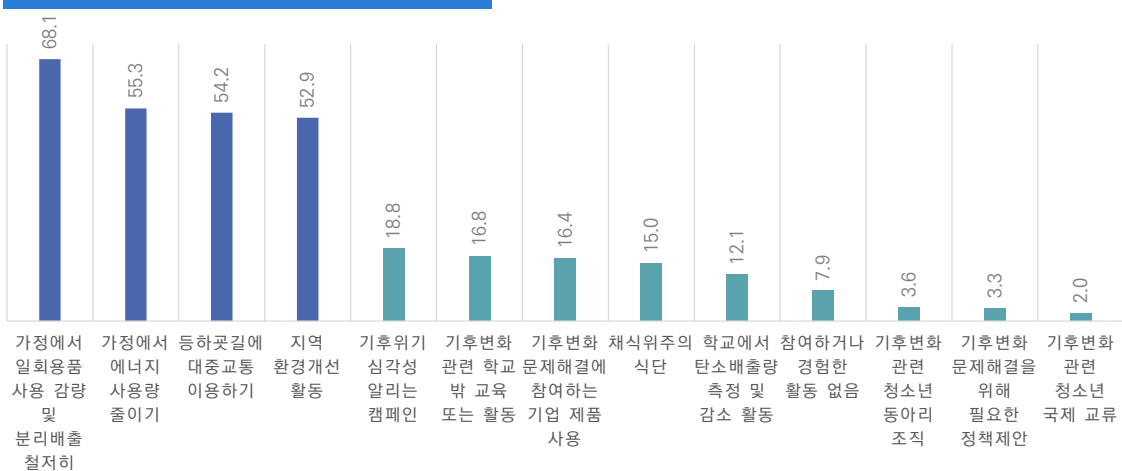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한 우선순위



조사 결과

-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한 우선순위를 2가지씩 응답한 결과 국가의 정책 마련 및 실시 > 기업의 친환경 경영 강화 >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 다양한 정보 제공 >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초등학생은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국가의 정책 마련 및 실시와 기업의 친환경 경영 강화를 우선 순위 중요사항으로 인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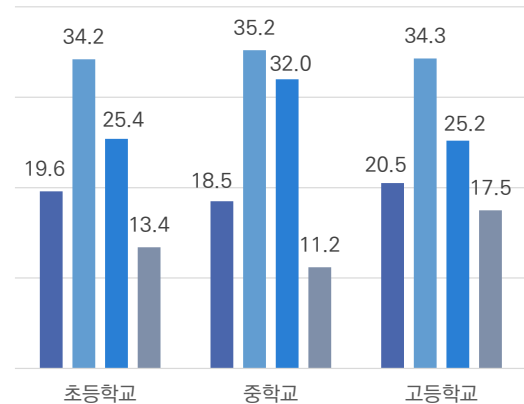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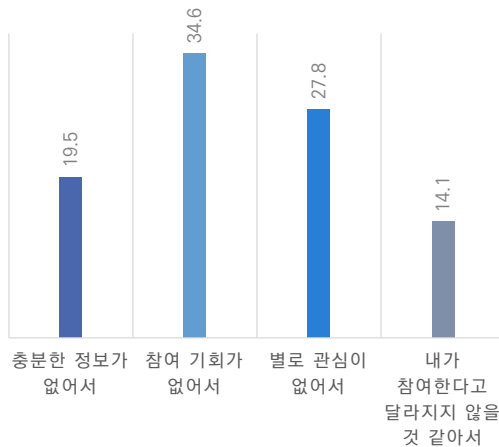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 경험



조사 결과

-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 참여 경험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일회용품 사용 감량 및 분리배출 철저히 하기 >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 줄이기 > 등하곳길에 대중교통 이용하기 > 지역 환경개선 활동 등의 순으로 나타남.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



조사 결과

-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참여 기회가 없어서 > 별로 관심이 없어서 > 충분한 정보가 없어서 > 내가 참여한다고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의 순으로 나타남.
- '별로 관심이 없어서'의 응답 비율은 중학생에게서, '내가 참여한다고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의 응답 비율은 고등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남.

시사점

기후변화 인식: 나와 공동체의 문제로 접근 필요

- 기후 변화 발생에 대한 높은 인식 수준에 비해 실제 이해도와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활동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공동체와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 기후 변화 문제가 실제 자신의 문제이자 해결할 수 있다는 행위주체성 필요. 자신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와 관련하여 기후 변화 문제를 탐색해 볼 수 있는 활동 경험 필요

학교급별 차이를 고려한 접근 필요

- 초등학생에 비해 중·고등학생이 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도는 높으나 실천 의지는 낮고 부정적인 인식은 높게 나타남.
- 중학생은 이해도, 역량에서 초등학생과 비슷하거나 낮게 나타나며, 관심도가 가장 낮음.
- 중·고등학생은 개인(청소년, 교육)보다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함.

-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학교급별 특성 및 교육과정 고려, 지역 내 탄소중립 관련 전문 자원 연계를 통한 활동 다각화
- 탄소중립 정책 참여: 청소년 친화적 접근으로 정책 이해, 소통, 참여 기회 확대

04

청소년 탄소중립 정책참여 실행연구

NF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실행 연구 개요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국가 및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수립-이행-평가에 대한 청소년 참여 필요
- 청소년 정책 참여 모델 개발 필요: 기본 원칙, 구성 요소, 실행 방안 마련에 시사점 확인
- 청소년 참여적 실행 연구: 청소년들이 활동 기획 주도, 행위 주체성의 형성 과정에 초점

사례	보라매청소년센터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활동 목표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 해석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 제안
활동 기간	2022년 4월 ~ 11월	2022년 5월 ~ 11월
청소년	동아리 참여자 중 희망자 총 11명 (중학생: 3명, 고등학생: 3명, 대학생: 5명)	지역 내 공모를 통해 신청자 선정 총 14명 (중학생: 4명, 고등학생: 2명, 대학생: 2명, 대안교육기관 학생: 6명)
청소년지도자	팀장 1명, 팀원 2명	팀원 1명
연구자	공동연구원	연구책임자
자문·협력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민참여분과 위원	지자체: 기후환경국, 환경교육 팀, 청소년정책 팀 전문가: 지역 탄소중립 정책 전문가 및 환경교육 전문가
결과물 활용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피드백 및 활용방안 검토 예정	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 정책사업에 반영 (정책간담회 실시: 2022년 11월 25일)

보라매청소년센터: 2050탄소중립시나리오 읽기



- 기후변화 원인, 영향, 완화, 적응에 대한 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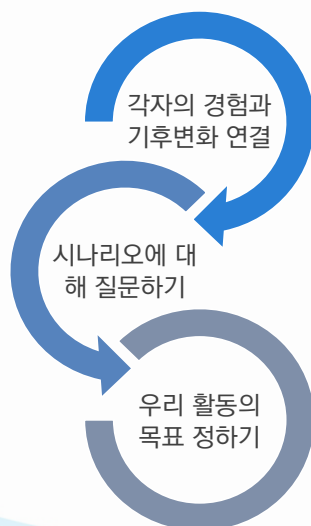
- 비판적 읽기: 질문하기, 스스로 생각하기, 다른 관점에서 보기 등

- 내용 소개, 부연 설명, 관련 자료 검색, 쟁점 토론

- 목차 구성
- 부문별 작성

행위주체성 형성의 맥락: 1) 비판적 읽기

비판적 읽기의 참여 과정



2050 시나리오에 대한 첫인상

이걸 보는 사람이 있을까?

정부나 기업들의 정책이 나와 멀게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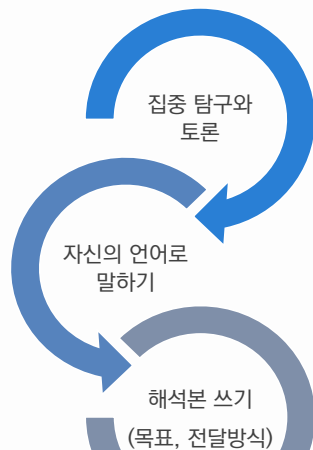
이게 과연 실현이 될까?

목표는 있는데 왜 그만큼인지 근거 또는 설명이 부족하다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머릿속에 그려졌으면 좋겠다.

행위주체성 형성의 맥락: 2) 읽기(독자)에서 쓰기(저자)로 나아가기

시나리오 해석본 만들기 과정



청소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해석본 목차

[시작 1]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나는 얼마나 알까? '2050 탄소중립 퀴즈(테스트)'

[시작 2]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아는 것, 왜 중요할까?(공감대 형성)

-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중에서도 내가(우리가) 이 분야를 선택한 이유는요?
-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OO 분야를 읽기 전, 이것 먼저 알고 가보자!
-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OO 분야! 이해를 위해 필요한 필수 단어
-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OO 분야 파헤쳐보기

[마무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나(우리)의 생각

PART 1

탄소중립 유형 퀴즈

행동 유형 5개, 지식 유형 9개의 퀴즈 잘 풀어보셨나요? (*답안지 부족 첨부)
탄소중립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탄소중립 유형 퀴즈를 만들어봤어요!
[행동 유형 5개 + O/X 퀴즈 9개]를 합쳐 나의 동물 유형을 확인해보세요.



나의 동물유형은 '소'입니다.
(0~4개)

소는 질을 알지도 (소, 리얼) 소가 배출하는 탄소는 어디까지 하니까?
탄소중립에 대해 이해 없이 아는 단계를 넘어 우리와 함께 조금 더 노력해보요.



나의 동물유형은 '닭'입니다.
(4~7개)

탄소배출이 큰 소 보다는 덜 할 닭 유형이네요!
탄소중립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지만, 아직 해결하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우리와 함께 더 정확하게 알아가봅시다!



나의 동물유형은 '꿀벌'입니다.
(7개~10개)

흔들만 한 꿀벌이 지구 생태계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탄소중립에 대해 30% 정도 알고 계시네요!
탄소중립에 대해 더 알아보고, 꿀벌처럼 다른 청소년들에게 전파해주세요.



나의 동물유형은 '고래'입니다.
(11개 이상)

바다의 수호신이라고 불리는 고래-고래는 몸 속에 인간발자국을 저장하는 등 기후변화 극복을 위해 큰 도움을 주는 동물이지요.
탄소중립에 대해 정말 많이 알고, 통탄하고 있네요!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실천해주세요.

청소년이 읽고, 다시 쓰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탄소중립 시나리오 재구성 프로젝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분야별 재해석

농축수산

[농축수산]

- 1) 내(우리)가 이 분야를 선택한 이유는요!
- 2) 농축수산 분야 시나리오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 zip
- 3) 농축수산 분야 이해를 위한 필수단어
- 4) 농축수산 분야 시나리오 파헤쳐보기

● 농축수

배출량 변화(배출량CO₂e) : (1990) 24.7 → (2050) 15.4 (△ 37.7%)

감축수단

- (연료 전환 등) 아전 및 농기계 연료의 전기수소화, 고효율 에너지 설비 보급, 바이오에탄올 에너지화 등 추진
- (농축산) 제분에너지 보급을 통한 농축에너지 자립률 조성, 농기계보일러 등에서 사용하는 동유-경유 수요의 전기수소화
- (수산) 노후 어선 교체 및 장비 고효율화 수단 확대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요약본 참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분야별 재해석

건물

[건물]

- 1) 내(우리)가 이 분야를 선택한 이유는요!
- 2) 건물 분야 시나리오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 zip
- 3) 건물 분야 이해를 위한 필수단어
- 4) 건물 분야 시나리오 파헤쳐보기

● 건물

배출량 변화(배출량CO₂e) : (1990) 52.1 → (2050) 6.2 (△ 88.7%)

감축수단

- (에너지 효율향상) [건축에너지에너지효율 1등급 100% 및 [기타그린리모델링 에너지효율등급 가장 1+, 상급 1+ 100% 달성으로 2018년 대비 냉난방 에너지 사용 원단위 30% 이상 개선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요약본 참조

PART 3

프로젝트를 마치며-

중고등학교 때부터 지구온난화가 심각해 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줄여 나간다는 것만지 몰랐다.

자세히 알아봤는데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 지 막막했다.

차근차근 단어부터 이해를 하고, 모르는 부분은 전문가들이 설명해주어 점점 이해가 갔다. 하지만 이해를 하면서 이것이 정말 실현될 수 있을까는 걱정과 이를 실현하면서 다른 부분, 특히나 경제적인 면에서 앞으로 나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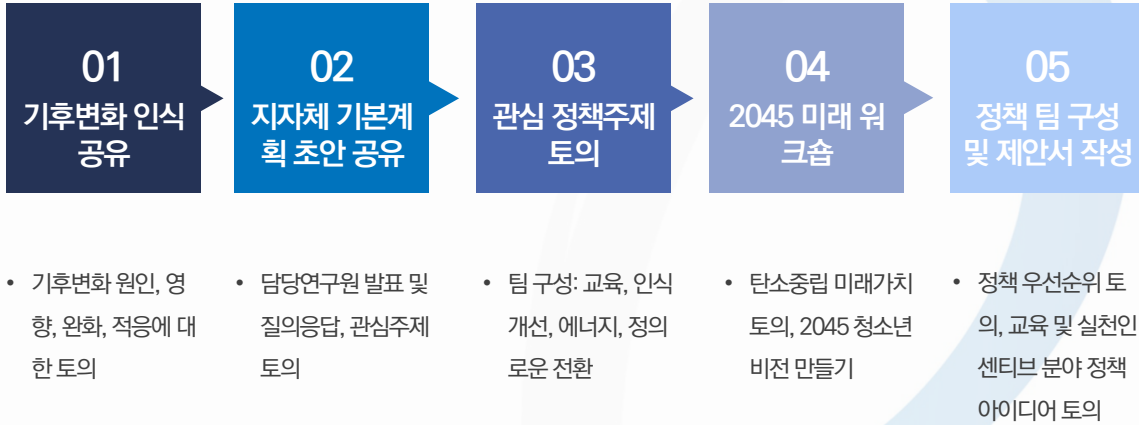
아직 대책 마련 중인 정책들도 있는 것이 못날 환경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준 숙제 같이 느껴지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알려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재해석해서 청소년들에게 좀더 친밀하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청소년 A



충청남도 청소년 탄소중립정책단: 탄소중립 정책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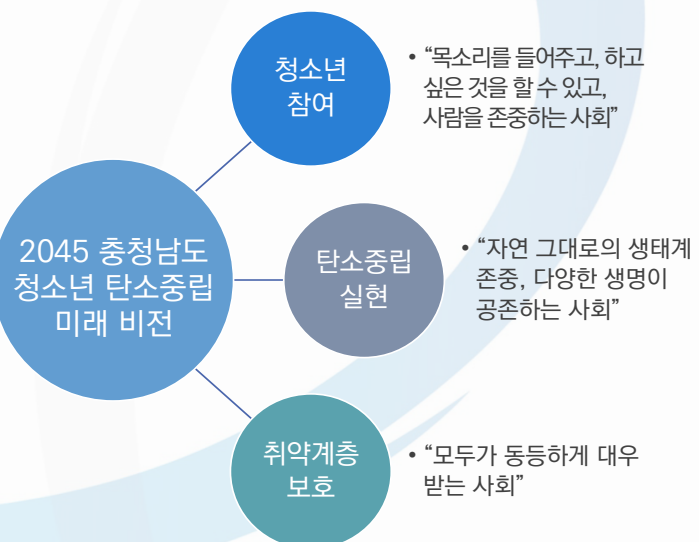
행위 주체성 형성의 맥락: 1) 청소년 자신의 문제로 인식

환경에 대한 관심 → 기후 위기, 탄소중립정책 중요성 인식 → '우리가 원하는 미래'

기후위기가 내 삶에 미칠 영향 전망하기

환경	- 서식지 파괴, 전염병 확산, 식량값 상승, 해수면상승으로 주거지 침수 - 생물다양성 감소, 식량 감소로 음식의 수 감소, 해수면상승으로 국토손실, 폭염과 한파 증가, 눈을 보는 즐거움 사라짐. 여름과 겨울의 양극화 심화, 문화재 손상
수송	- 가장 편리하고 효율높은 수송 수단인 자동차는 계속해서 필요공용주차장을 지을수록 불필요한 비용과 자원 낭비 - 폭염으로 인해 자동차를 더 많이 타게 되어 기후 위기 악화
산업	-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반도체산업, IT, 정보 산업, 제철소, 공장식 축산업 등의 지속 문제 - 값싼 옷을 생산하는 의류산업, 건설 원재료, 산업 쓰레기 처리, 기업의 책임 회피
에너지	- 좁은 국토, 비효율적 공간 사용으로 친환경 에너지 발전이 어려움 - 화력발전소 수명이 남아있어 당장 폐쇄 조치가 어려움 - 원자력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 신재생에너지 투자 지원이 줄어들

미래비전 도출하기



행위 주체성 형성의 맥락: 2) 지자체 정책 →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

지자체 정책 토의

- 전체적인 틀은 잡혀 있지만 **자세한 부분들은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다.
- **산업 부문**에 있어 공장 운영 방식이나 원료 등의 요소만 고려할 게 아니라 그들이 배출하는 탄소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 **정의로운 전환**과정에서 복지가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궁금하다.
- **환경교육**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 에너지 빈곤층과 기후 위기 **취약계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정책이 담기면 좋겠다.
-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앞장서면 좋겠다.

정책 관심사 토의

- **에너지 정책**: 글로벌 흐름과 우리나라 정책의 차이, 신재생에너지 지원 현황
- **정의로운 전환**: 기본 개념 및 논쟁 파악, 특구지정, 위원회 구조 필요
- **환경교육**: 학교 환경교육 실태자료, 학생 만족도 낮음, 전문성 문제, 지자체 지원방향
- **인식개선**: 기업·농업·축산분야 현황 파악, 광범위한 효과제고 방법 필요

우선순위 결정

- 정의로운 전환, 일자리
- 탄소배출 책임 기업: 시급/영향력(1순위)
- 신축건물 에너지 자립/탄소중립
- 참여형 환경교육: 행동과 실천(2순위)
- 환경 축제/행사: 인식개선
- 실천 인센티브 제공: 아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실천 유도(3순위)

충청남도 청소년 정책제안

정책 제안 결과

- '청소년들의 요구를 실현하고, 스스로 참여하고 싶은 정책'
- 청소년 주도성: 환경교육/환경 예술제
- 탄소중립 실천: 쓰레기 포인트제, 탄소중립 트럭

충청남도 5지역 5 환경교육 프로젝트 (미래세대환경인증제)

- 5가지 환경소양을 전제한 환경교육 프로젝트
- 5지역에서 학습, 체험 후 또래 청소년과 함께 하는 후속 프로젝트 수행

충청남도 청소년 환경 종합 예술제 (슬기로운 제로생활)

- 환경 예술제(영화제, 환경동아리 축제, 미술전 등)
- 보다 많은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 촉진

네프론 기기 전파를 통한 쓰레기포인트제 활성화

- 아파트 분리수거장 및 주택가 골목 네프론기기 설치
- 분리수거 시 포인트 제공

충청남도 탄소중립 트럭

- 충청남도 관광지에 탄소중립 트럭설치 및 쓰레기 수거
- 쓰레기를 수거한 도민 대상 과자 및 음료 제공

05

정책 제언

슬로건: 청소년 권리 실현으로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미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제언 내용

정책 목표: 탄소중립 전환의 시대 청소년의 다양한 권리 및 참여 보장

- 청소년 기후 권리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기후대응기금)
-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청소년정책 추진내용 반영
- 청소년 주도적 기후행동 전략 개발 및 확산
- 청소년 기관/시설 역량 강화
- 탄소중립 유관기관 협의회 구축을 통한 정책 발굴 및 지원 확대(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교육부, 기상청, 산림청 외 주요 에너지·환경 공기업 및 공공기관)
- 기후위기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통합지원 방안 마련

현재

-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에 대한 청소년 정책 차원의 전략 부재
- 개별 프로그램, 시설 차원의 접근에 한정
- 탄소중립 정책 유관 기관 간 협력체계 부재



청소년정책 중기 전략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 청소년 기후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
- 탄소중립 정책에 청소년 참여 기회 확대
- 청소년 기관(시설),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지원



청소년정책 장기 전략

- 청소년 정책 영역별 기후 권리보장 이행 평가
- 청소년의 탄소중립 정책 참여 제도 확산
- 청소년 기관(시설)의 탄소중립 달성 목표 수립 및 이행 평가

학교-지역사회 기후·탄소중립 청소년 활동 활성화

교육과정 연계 기후·탄소중립 청소년 활동 체계 개발

현황 및 문제점	추진 내용 및 방법	기대효과
- 학교 환경교육 연계 프로그램 수요 증가 - 개별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많으나 활동 주제의 다양성과 전문성 부족	- 기후·탄소중립 주제의 청소년 활동 역량 개념 요소 및 활동 요소 개발 초·중·고 교육과정 분석 및 청소년 활동 연계성 분석 - 학교급별/주제별/활동 유형별 프로그램 예시 제공 - 각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프로그램 기본 틀로 참고하도록 배포	- 청소년 역량기반 기후·탄소중립 교육 효과성 제고 -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확대

교육과정 연계 기후·탄소중립 체험활동 프로그램 체계화(국립청소년수련시설)

국립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현황	체계화 방법	기대효과
(평창) 탄소중립 실천활동(온라인, 학교방문, 숙박형 등) (농생명) 학교 연계 초·중등 환경교육프로그램(5차시) (미래) SDGs 테마별 프로그램	- 기후·탄소중립 내용 분석 및 프로그램 추가 개발 지역 탄소중립 이슈 반영, 관련 공기업, 공공기관, 기업 연계 - 교육과정 연계 요소, 평가지 제공 - 국립시설 체험활동 프로그램 지도 제작 및 배포	- 학교 환경교육을 보완한 체험 및 실천 중심 역량 개발 기회 제공 - 국립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확대

지역사회 환경교육-청소년 활동 협의체 구축

청소년 기관(시설)·지도자 역량 개발 지원

탄소중립 실천 우수 청소년 기관(시설) 선정·지원

청소년 기관(시설)의 ESG 경영 체크리스트(안)	
대항목	소항목
청소년 활동	-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증진과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 여부 - 관련 세부사업의 목표 달성 정도 - 관련 청소년 활동 기획시 청소년 주도적 참여 정도 - 관련 지도자 연수 및 역량강화 참여 정도 - 관련 사업운영의 지속가능성(조직/예산/부처 지자체 교육청 지원 등)
기관 경영	- 기관 비전에 기후위기 대응 또는 탄소중립 관련 내용 포함 여부 - 기관 경영계획에 관련 내용 포함 여부(ESG, 지속가능경영 관련 포함) - 조직 구성 및 운영상의 탄소중립 관련사항 우선순위 반영 정도 - 기관 차원의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 정도 - 기관 차원의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수렴 여부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영향력 제고 방안
시설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여부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여부 - 시설 개보수 계획에 탄소중립 관련 내용 반영 - 친환경적 시설 설치 및 활용 정도

사회환경교육 연계 청소년지도자 연수 기회 확대

- 국가환경교육센터의 다음 사업과 연계
 - 환경교육사3급 양성과정 교육비 지원(일부 학점 인정)
 - 환경교육 아카데미 사업 지원(전문역량 개발)
 - 사업 수혜자의 경우 지역별 학습모임 운영, 전문성 전파
- 청소년활동진흥원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국가환경교육센터의 프로그램 및 강사 지원 협의)
- 향후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지자체 지원 기회 확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국가환경교육센터 협력

다양한 청소년 주도 기후 행동 확산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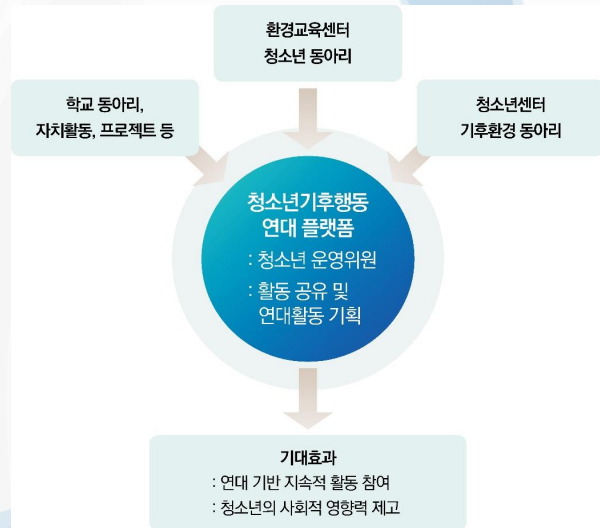
지역사회 청소년 기후 행동 전략 및 실행 가이드 개발·보급

- 가이드 구성 내용
 - 청소년기후 행동의 목표
 - 청소년 주도적 활동의 설계
 - 기후환경 관련 정보 및 자원
 - 유형별 우수 사례
 - 청소년기관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역할
 - 청소년 주도 활동 기획 목차 및 체크리스트
- 개인 실천 중심에서 에너지, 주거, 교통, 기후 정의, 정의로
운 전환 등, 탄소중립의 핵심 영역 포함
-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해 우수사례 발굴

지역사회 청소년 기후 활동단체 지원

- 자생적 청소년 조직 운영의 방향
 - 조직 운영의 목표와 방법을 청소년들이 스스로 결정
 - 청년 활동 연계
 - 지역사회 청소년 기후리더 양성

청소년 기후행동연대 플랫폼 구축·운영



청소년 탄소중립 정책 참여 모델 개발·확산

국가탄소중립정책 청소년 참여 플랫폼 운영(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현황 및 필요성	추진 내용 및 방법	기대 효과	담당부서
-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미래세대 청소년의 정책 참여 권리 보장 필요 - 유럽연합과 국가별 기후 거버넌스에서 청소년 참여 지원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에 청소년 활동의 장 마련 - 청소년의 관점에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 퍼실리테이터(청년활동가, 청소년지도자, 환경교육전문가 등) 지원 청소년 동아리활동, 참여기구 활동 연계 - 위원회 및 부처 명의 우수 사례 포상	- 청소년 친화적 탄소중립 정책 수립과 소통 추진 - 청소년의 사회적 영향력 제고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여성가족부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 청소년 참여 모델 확산(가칭 '청소년 탄소중립 정책단' 운영)

현황 및 필요성	추진 내용 및 방법	기대 효과	담당부서
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과 이행에 청소년 참여 장치 부재	- 각 지자체에서 기후정책 부서, 환경교육팀, 청소년 팀이 공동으로 행·재정적 지원 - 청소년기관(시설)에서 청소년 모집, 사전 교육, 활동 지원 - 지역 내 환경교육센터 등, 전문자원 연계 2050탄소중립위원회 우수 사례 포상 전국적인 정책단 협의체 운영을 통해 활동 공유 및 국가 정책 수준에서의 참여 기회 마련 (장기) 탄소중립기본조례 및 탄소중립위원회 운영지침에 청소년 참여 제도화 방안 마련	- 지자체 탄소중립정책과 청소년정책 간 시너지 효과 - 지자체 탄소중립 추진에 청소년의 실질적 영향력 제고	- 각 지자체 - 여성가족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감사합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없지만,
지속가능한 청소년 환경 참여 활동을 위해 중요한 것”**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없지만, 지속가능한 청소년 환경 참여 활동을 위해 중요한 것”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손서연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을 끝마친 수험생이자,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에서 환경 동아리 활동을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손서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센터와 함께한 활동 외에도 국내외 다양한 환경단체, 국제기구 등과 함께 환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참여해왔습니다. 이번 청소년 기후환경 정책연대 세미나를 통해 지금도 환경을 위해 다양한 곳,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청소년들을 모두 대표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 과정속에서 배우고, 느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토론문을 작성하기 전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기후위기, 환경교육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

“환경을 지키자..?”

기후위기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지구 온도를 1.5℃ 낮추기 위해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하고 환경과 관련된 너무 많은 이슈와 정책들이 매스컴에 쏟아지고 있지만 우리는 왜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까요? 현재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는 환경교육은 피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천이 정말 중요한 환경 분야에서 우리는 항상 이론과 글을 통해서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환경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큰 용기와 시간을 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큰 장애물이 되고, 이런 마음과 무관심은 결국 환경 참여 활동에 진입장벽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의 참여는 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제 주변의 친구들도 ‘환경 참여 활동’이라고 한다면 캠페인, 플로깅 등 환경과 관련된 직접적인 위기를 알리는 활동이나, 가시적으로 효과가 한눈에 보이는 정화 활동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정책’이 접목된 활동을 소개했을 때에는 “굳이?” “너무 어렵다.” “정책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당장 나에게는 크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라는 대부분 비슷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기 버스, 일회용품 보증금제도 등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용하고 익숙해진 모든 것들은 환경정책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더욱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알고, 비판적 수용을 통해 참여 활동에 동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후위기 시대 **청소년의 정책참여 활동의 중요성** 대해 이야기하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올해 저는 보라매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의 시선에서 다시 쓰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재구성 프로젝트’ 활동을 1년 동안 참여해왔습니다. 또래에 비해 환경에 관심이 높은 편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저조차

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라는 단어를 수없이 들었지만, 저도 관련된 활동 기회가 주어지고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가 있기 전까지 거부감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재구성 프로젝트’ 활동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아동, 청소년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보다 더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정리, 단어 전환, 원문에 대한 해석, 생각 코멘트 등 10명의 청소년이 함께 긴 학습 시간과 공유 과정을 통해 주도적으로 재해석본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해석본 결과물을 만들어냈나 보다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대안과 정책과제들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말하고 일상과 연결해보는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실제로도 각자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정책 분야를 선택했고, 탐구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려웠지만 함께하는 청소년들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던 부분이 가장 인상 깊게 남습니다.

다른 환경 참여 활동들과 달리 당장의 성과가 눈앞에 보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공유하면서 재구성하는 활동은 불안함에서 시작해 마지막에는 큰 성취감과 과정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기후위기 시대 청소년의 정책참여 활동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제안하자 합니다.

첫째, 환경정책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의 다양한 참여 활동 기회 제공과 진입장벽을 낮춰야 합니다. 청소년센터 등에서는 기존 환경 관련 프로그램 외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같이 환경정책에 대해 스스로 학습하고 또래 청소년들과 공유하는 과정으로 나의 일상과 연결 지어보는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청소년 중에서 “결과물을 내는데 급급했던 다른 활동들에 비해 이번 활동은 충분히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이 의미있었다.”라고 평가했던 것처럼 성과 중심의 참여 활동 보다는 실패를 할지라도 환경정책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내용을 알고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환경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전국 몇몇 시설, 학교 등에 대한 자료 조사 결과 환경정책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활동 사례를 찾아보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참여기구나 정책 활동에서는 환경 분야에 대한 청소년들의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했지만, 이 또한 각 지자체에 제안하는 환경정책 내용만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교, 청소년센터, 환경 관련 단체 등에서는 환경정책을 기반으로 다양한 참여 활동 개발을 통해 지역의 청소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거부감을 낮추고, 쉽고 편하게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탄소중립 미래를 위해 환경 시민으로서 청소년 권리 향상을 위한 제7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재해석 프로젝트 활동 중 저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이 시나리오는 도대체 누가 읽으라고 이렇게 만들걸까? 이걸 읽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였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정부에서 만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해둔 정책문서입니다. 주요 정책을 만드는 주체는 분명히 있지만, 정책문서를 읽는 주체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대상에 맞춤형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매우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후위기 시대가 시작됐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겠다.’ 등의 목표를 수립했다면 정책을 만든 정부뿐만 아니라 이를 접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이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는 남의 이

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 즉, 환경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실현하고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보라매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로 활동 중이기도 합니다. 보라매청소년센터는 기후 환경 분야 사업을 전략 사업으로 운영 중인데, 센터 운영에 대한 친환경적 전환을 위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바로 제7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환경 시민으로서의 청소년 권리와 청소년센터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제7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고, 어느 하나의 기관이 아닌 전국의 청소년시설이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7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행 과제 중 1)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청소년시설의 역할, 2) 환경 시민으로서의 청소년 정책참여 기회 확대, 3) 교육·체험·탐구·공유 등 과정 중심의 환경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꼭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청소년시설의 운영과 활동을 관할하는 부처와 정부 기관이 환경 분야의 내용만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활동 참여 활동의 활성화와 청소년시설의 역할 정립을 위해서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제7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청소년을 환경 시민으로서 존중하고, 다양한 청소년 참여 활동 안에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환경 참여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기성·지속성을 기반으로 한 공동의 목표와 수행 과제 수립입니다. 청소년시설은 여성가족부, 환경교육센터는 환경부, 학교는 교육부 등 각자 관할하고 있는 부처가 모두 다릅니다. 저는 각 부처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환경 활동에 참여해본 청소년으로서 ‘환경교육’과 ‘환경 참여 활동’은 운영 주체를 불구하고 유기적인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위기라는 문제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지속가능을 위한 전 세계적인 공통 과제인 만큼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참여 활동이 당장의 단회성 이슈로 끝나거나, 5년 정도의 정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기성과 지속성을 기반으로 공동의 목표와 수행 과제를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환경 시민으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입니다. 학교 교육의 입시가 중시되는 우리나라에서 봉사 시간의 불인정, 생활기록부 기재 불가 등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을 위해 시간을 쏟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청소년의 환경 참여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 지역사회, 학교, 시설에서는 이 과정에 참여하는 청소년을 단순히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이해하고 함께 협력하는 파트너로서 존중해야 합니다. 나아가 다양한 청소년 환경 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주체들은 다양한 환경정책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이 활동 과정을 온전히 이해하고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청소년 참여 활동이 ‘청소년’을 환경 시민으로서 존중하고, 함께하면서 활성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며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기후위기 시대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박현성

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박현성입니다.

저는 이번 연도 4월부터 11월까지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활동진흥센터에서 충청남도 청소년 탄소중립정책단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저희 탄소중립 정책단은 자연 그대로의 생태계 존중,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충남이라는 비전과 청소년 정책 참여와 존중, 기후정의 부분에서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비전을 토대로 미래과제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미래세대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였고 이것을 목적으로 탄소중립 기본교육, 지역사회 탄소중립 이슈 발굴 - 탄소중립 정책 발굴 - 지자체 연계 정책제안 등을 진행 하였습니다.

이번 정책단 활동을 통해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책단 활동을 하며 직접 느낀 청소년 정책 참여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한 점, 청소년 정책 참여에서 중요한 것, 정책 참여를 통해 배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의 탄소중립 정책 참여에 있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에 관한 기초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참여와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문제점을 발견해 프로젝트 주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단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기초적 자료가 너무 부족하거나 찾기 힘들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 안에 있는 대학 32개 또는 전국의 시청과 도청 각각의 탄소 배출량은 얼마 이고 일 인당 탄소 배출량은 얼마인지, 탄소중립 현황 공유와 기후재난으로부터 기후위기 취약 계층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받고 있는지, 기후위기 취약계층 개개인 인터뷰를 통해 기후위기 또는 탈탄소로의 전환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와 같은 자료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양질의 자료들을 비교 및 분석함으로 문제점과 정책 제안의 주제로 삼아 청소년 청년의 정책 참여에 있어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시로 대학 내 전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 A 대학교 학생회와 A 대학교가 연합해 기존의 A 대학 평균 전기 사용량의 10%를 줄이는 운동을 시작하고 에너지를 줄임으로써 절약되는 돈을 학생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회는 단과대별 전기 사용량, 건물별 전기

사용량 등 데이터를 통해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세분화된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비슷한 크기와 비슷한 두 학교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에서 큰 차이가 있다면 이것을 발견하고 왜 두 건물은 에너지 사용량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지 등 새로운 정책 제안의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적 자료는 정책 제안을 준비하는 과정과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어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있어 청소년의 역할 강화를 위한 꼭 필요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서 황세영 박사님께서 발표해주신 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에 비해 중-고등학생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도는 높지만, 실천 의지는 낮고 기후위기에 따른 불안과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 감정들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한 청소년의 정책 참여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사는 곳인 인천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기후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8월 제가 두려워했던 인천이 물에 잠기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이전에도 기후 행동을 열심히 하고 있던 저도 견잡을 수 없는 두려움과 무기력함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시기를 가졌습니다. 그 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에는 기후위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과 심리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또한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중요성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 어른들에게 기후위기로 인해 불안하다고 이야기하면 과연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직까진 어떤 대답이든 '열심히 공부해서'라는 수식어가 붙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찾아지는 기후재난들로 기후 우울증을 앓는 청소년 또한 늘어날 것이기에, 기후위기를 인식하더라도 외면하지 않도록 하는 심리적 지원은 앞으로 더욱 중요하고 필요할 것입니다.

추가로 탄소중립에 대한 기초자료, 심리적 지원 이 두 가지 모두 청소년, 청년이 정책 참여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결정권자에게 단지 기특하게만 여겨지고 마는 정책 제안이 아니라 결과물에 대한 압박을 늦추고 대학 또는 고등학교 에너지, 물, 쓰레기 배출량 모니터링이나 기후위기 취약계층 인터뷰와 같은 형태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취합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 멘티의 형태로 이전에 기후 우울증을 겪었던 또는 이미 청년 기후활동가나 환경교육자로 이러한 고민들을 했던 청년들과 기후 우울증을 앓거나 탄소중립 정책참여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연결함으로 '연대'와 '소통'을 통해 활발한 청소년, 청년 탄소중립 정책 참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정책단 활동을 통해 라포 형성과 지역적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존의 정책 참여와 같은 프로젝트형 활동에서는 결과 중심으로 결과를 내야 한다는 초조함으로 인해 비교적 뛰어난 학생이 프로젝트를 독점해 혼자 이끌고 나머지 다른 학생들은 큰 역할 없이 그냥 따르거나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제안하는 정책이 자신과 큰 관련이 없기에 더욱 활동에 의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충청남도 청소년 탄소중립 정책단 활동은 달랐습니다. 활동 시작부터 함께 구체적인 지식을 배우고 서로 각자 무엇을 잘하는지, 관심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쟁점들을 나누며 라포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사는 충청남도에 대해 배우고 ‘장소성’(Sense of Place)¹⁾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해 의미가 깊어져 사라지거나 훼손되는 것을 더욱 막고 싶어지는, 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정책 참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청년 정책 참여는 지역적, 속한 기관에서의 참여를 시작으로 그 크기를 키워가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폴란드의 교육학자이며 아동인권분야의 선구자인 야누시 코르차크의 말을 빌려 성인은 ‘생각하는 사람’인 반면 청소년은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는 곧 청소년에게 ‘살아있는 경험’이야말로 교육의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의 탄소중립 정책참여는 청소년들에게 생태적 세계시민으로 거듭나는 살아있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후위기로 위협받는 청소년의 기본권들이 청소년의 정책참여와 ‘존중’, ‘정의’, ‘청소년의 권리’ 등으로부터 보장되길 꿈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장소성’(Sense of Place): Space (공간)에 의미 또는 추억이 더해진 것을 의미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청소년의 참여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청소년의 참여

- 기후위기 시대 청소년 활동과 정책 참여 다각화 방안에 대한 토론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이선경

최근 교육 관련 주요 담론은 ‘변혁(transformation)’과 ‘행위주체성(agency)’라고 할 수 있다. UN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2030(ESD for 2030)에서는 거대한 변혁을 강조하고 있고, 이를 위해 개인의 실천에서의 변화와 사회구조의 변화 등이 강조되고 있다. OECD교육2030에서도 미래 개인과 사회의 웰빙을 위한 변혁적 역량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학생들의 행위주체성을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변혁에 대한 강조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으며,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 제도와 삶의 방식을 변혁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류의 미래가 암울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10월말 정부는 2050에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이라고 공포하였고, 이를 위해 2021년 탄소중립위원회¹⁾가 결성되어 2050탄소중립시나리오를 마련하고,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배출을 40%이상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와 계획은 단순히 내연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꾸는 것을 넘어서 전력, 산업, 농축산, 폐기물, 건물 등 사회 전반의 변혁을 필요로 한다. 2030년에 우리 사회의 핵심이 되고, 2050년에 우리 사회의 허리가 될 청소년들에게 탄소중립시나리오나 국가온실가스배출 감축 방안, 이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화두는 일상적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청소년의 행위주체성과 이를 통해 사회 변혁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청소년 기후환경 정책세미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도전적이다.

토론자가 속해 있던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서 2021년 처음 2050탄소중립시나리오를 접하고 논의했던 날이 생각난다. 수치들로 빼곡하고 무슨 의미인지 알기 어려웠던 시나리오 속에서 의미를 읽어내기 위해서 위원들은 하루 종일 발표를 듣고 질의하고 토론했었다.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된 교육계 협의체와 청년 협의체 회의에서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던 분들도 있었다. 사실 탄소중립시나리오가 쓰여진 방식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데이터에 기반한 또는 데이터 없이 기술된 시나리오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여러 차례 이어진 크고 작은 워크숍에서는 이 시나리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과도하게 또는 너무 과소하게 책정된 목표는 없는지, 어떤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런 주장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등 계속해서 학습하는 기회를 가졌다.

1)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처음 설립 당시의 명칭이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된 이후 대통령소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명칭과 위상을 변경하였다.

과학적 소양 또는 환경적 소양은 과학교육이나 환경교육의 중요한 목표이다. 여기서 소양은 literacy 즉, 문해력의 또 다른 표현이다. 과학이나 환경과 관련된 것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 나아가 비판적으로 해석해 낼 수 있는 역량은 과학자나 환경학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에서 필수적인 것들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점에서 위기가 될 수 밖에 없는지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적인 수준에서 또는 집단적인 수준에서 기후행동을 탐색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 즉, 기후변화 소양, 탄소중립 소양을 갖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나 국가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보고 시행해 보는, 사회적 학습이 일상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발제에서 황세영 박사팀은 기후위기 시대 청소년 활동 및 정책 참여 다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정책 현황을 고찰하고, 청소년들의 기후변화 관련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실제 이해도와 관심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의 하나로 정책 참여 실행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실행연구에서 어른이 읽기에도 쉽지 않은 탄소중립시나리오를 청소년들이 함께 읽고, 나름대로의 해석본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책 제안을 했고, 충청남도 5지역 5환경교육 프로젝트(미래세대환경인증제), 충청남도 환경종합예술제, 쓰레기포인트제 활성화, 탄소중립트럭 등 그 제안들이 단순히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싶다. 이들 정책이 실현된다면 지역 주민은 물론 청소년의 관심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은 정책의 제안과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작은 것이라도 삶에서 변화를 만들어낸 경험은 추후 더 큰 실제적인 변화를 만드는 게 기여할 수 있다.

이 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이 이후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책 문서나 기사를 접하게 되면 아마 2022년 함께 했던 경험과 같이 뜯어보고 의심해 보고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말로 만들어 보고, 실제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제시된 과제나 정책이 관련 대상에 적절한지 검토하고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이러한 활동이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시도될 필요가 있다. 과학교육이나 환경교육의 장에서 IPCC의 기후변화 보고서나 IPBES의 생물다양성 보고서, 2050탄소중립시나리오를 함께 검토하고 읽어보는 과정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에 기반하여 다른 교육의 장에서는 관련 쟁점을 탐구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쉽게 기술된 탄소중립시나리오, 기후변화 사실 자료(fact sheet) 등이 개발, 정리 및 보급될 필요도 있을 것이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중립이 정부의 모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문서를 검토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산업 전환, 공정전환 기후적응, 녹색성장 국제협력 등의 분야에서 관련 법과 정책을 특히 면밀히 검토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원회나 교육부 등에서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성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의 학습 과정을 꼼꼼히 들여다 보고, 다른 청소년들이 이러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도 목소리를 내고 정책 제안을 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상시적인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차원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제안된 정책을 구현하는 기회를 소규모라도 지원하여 실제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기후환경 정책 세미나에서의 논의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그 시작이 되길 바란다.

지자체 탄소중립정책과 청소년활동 지원

지자체 탄소중립정책과 청소년활동 지원

고양특례시의회의원 김미수

안녕하십니까?

고양특례시의회 시의원 김미수입니다.

저는 청소년 전문가가 아니고 원고도 없고요 현실의 이야기이니 편하게 들어주세요

저는 시의원보다는 활동가가 더 익숙하고 그렇게 살아온지 20년 넘어 활동하고 18년도 지방 선거를 통해 시의원이 되었네요. 청소년과는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하며 환경강사, 리더 활동하며 유아, 청소년과 함께 하는 교육, 체험등을 진행한 경험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양시 탄소중립 정책을 먼저 발표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전임시장님은 환경운동연합 활동을 하셨던 분이라 지난 4년 동안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특히 나무를 많이 심으시고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등과 앞으로 말씀드린 정책을 많이 수립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이번에 당선된 현 시장님도 2000년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과 공동 대표를 하신분이셔서(저는 그때부터 쪽 지속협 활동하고, 공동대표하고 시의원이 되었죠) 환경에 대한 관심은 충분하신 분이라 생각되지만 23년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 몇가지 정책을 삭감하셨더라구요, 환경도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르니 예를 들면 다회용 컵 정책이 전임시장은 탄소중립에 좋은 정책이니 활성화 하라고 지시했다면 이번 23년 예산에는 그것 또한 새로운 쓰레기를 만드는 것인 양 사업을 축소하는 현상이 있었지요.

선출된 의원이 하는 역할 중 중요한 것이 국회의원은 법령, 시,도의회는 조례를 만드는 일인데 모든 사업 즉 예산(국민의 세금)을 지출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고 행정부에서 예산이 제출되면 근거는 맞는지?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조직과 예산을 어느 곳에 많이 편성하였는가를 보면 대통령, 도지사, 시장등 집행부의 중요 정책이 무엇인가를 알수 있습니다. 고양시의 조직의 특징은 녹색도시담당관이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관심이 많다는 증거이지요.

고양시의 탄소중립 정책이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첫번째는 탄소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발생된 후 재활용에 관한 정책이지요.

주로 녹색담당관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위주로 녹색건축, 그린모빌리티, 도시숲 등에 관한 사업을 하는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1조 도시숲등의 조성, 관리 규정에 의해 벽면 녹화 시설물 점검 및 관리공사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협정에 탈퇴하였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환경보다는 경제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이로 인해 미국 환경정책은 많은 변화를 맞이하였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기후변화협정에 가입하는 등 미국이라는 나라도 대통령 한명의 의지에 따라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것을 방송을 통해 보았습니다.

저는 고양시 환경경제위원회 소속인데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여 일회용컵 사용하지 말고 텀블러를 사용하자 제안하니 좋다는 의원과 그러면 경제도 생각해야 하는데 종이컵 회사는 어찌하나요? 하면서 저는 소상공인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종이컵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의원이 계셨던 일화도 생각납니다. 한명의 정치인이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정치인 선출에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양시 환경정책과에서는 다양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하는데 그중 23년도 핵심사업은 탄소중립기본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63조에 의거 고양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안)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빠르게 설립계획을 세운것이고 이는 시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고양시 환경기본조례 제17조의2에 의거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사업은 지속적인 녹색생활 실천 활성화 및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해 시민주도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사업 운영하는 것으로 나눔마켓, 청년몰, 재활용품, 소상공인 녹색제품, 로컬푸드 판매 등과 시민아카데미 개최(시민·공무원 대상 교육, 사회적 실천 약속 개발)·환경 공모전 개최, 기후위기 대응 시민 캠페인 실시, 자연환경 보전활동·1가구 1수목 가꾸기 운동 나눔마켓, 물품교환 등 접수를 고양 탄소지움 디지털 통합 플랫폼등의 사업이 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후변화대응 인식증진은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시민 인식향상 및 대내외 협력 홍보활동으로 정책 홍보를 위한 리플릿, 포스터, 현수막, 책자 등을 제작, 배부하여 저탄소 생활실천 시민 운동을 벌이기 위한 사업으로, 재활용 꾸러미, 공공기관 직원의 탄소중립 인식향상을 위한 퀴즈 이벤트 홍보물, 국제사회 및 국내기관과의 협업을 위한 홍보물, 차 없는 거리 등 각종 탄소중립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 탄소포인트 가입을 위한 홍보물, 1인 1톤 줄이기 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물 다양한 사업,

탄소중립기본법 제22조 및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제11조(고양시 2050 탄소 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의거,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운영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1. 탄소중립 비전 및 시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2.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3. 연도별 목표, 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5. 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고양시 환경정책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27조에 의거

고양시 배출권거래제 대응 용역을 진행하며,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0조고양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은 법정사무로 전국의 지자체가 5년마다 반듯이 해야하는 것이며, 기후변화 영향의 실질적 피해대상인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피해완화 및 예방을 목적으로 그 내용은

1. 고양시 기후변화 현황 및 분야별 피해조사
2. 고양시 기후변화 및 영향 전망
3. 분야별 영향 및 적응능력을 고려한 취약성 평가라. 지역별 취약분야 우선순위 선정
4. 세부시행계획 목표설정 및 적응대책 발굴 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을 담아야 한다.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4조에 의거,

차없는거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은 고양시 탄소배출량의 36%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탄소저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고, 차 없는 거리에서는 온실가스 교육, 환경 관련 참여수업, 가족체험 프로그램, 플리마켓 등의 사회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엔환경 자문기구인 이클레이 가입하여, 고양시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대한 국내·외 인지도 향상과 지속가능한 탄소 중립도시 인식 제고와 이클레이 주요 사업 참여를 통한 글로벌 기후행동 과제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 방향결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23년 예정)의 한국 홍보관 운영과 부대행사 참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3조에 의거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사업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과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환경정책 추진상황의 체계적·종합적 점검,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차년도 계획 보완, 우수사례 선정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의 정책.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현금, 그린카드, 문화상품권 중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으며 현행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 실시하여, 운전자가 주행 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 운전을 실시할 경우 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하고,

고양탄소지움카드 운영

- | | |
|-----------------------|--------------------|
| ① 탄소포인트제 | ②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 인센티브 |
| ③ 버스 이용 교통 포인트 제공 | ④ 기후·환경교육 이수 및 관리 |
| ⑤ 지역난방 절감 아파트 인센티브 지급 | ⑥ 나눔마켓 참여 |

대중교통 이용과 연계한 보행 / 자전거 이용거리에 대한 마일리지 를 800미터까지 1회한도 250원 ~ 450원 적립(15회 이상 이용시) 800미터 미만은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지급하는데 이는 청소년들도 참여가능한 사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에 의거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정책은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국고보조사업으로, 비산업 부문(가정·상가)의 온실가스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자,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모집 및 양성·참여가정 모집 및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실시·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31조

물순환시설 운영은, 수변공간, 빗물과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물 순환시설 운영으로 폭염, 도시 열섬 저감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쿨링앤쿨린로드 운영.

고양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탄소중립시민실천연대의 기후위기 대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관이 주도적인 탄소저감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많은 도시입니다.

또한 고양시청소년재단 산하 5개 센터에서는 고양시 청소년관련 사업은 청소년 스스로 제안하고, 참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며 센터는 이것을 잘 활동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표이며, 자랑이라 생각합니다. 저또한 지난 추석 명절에 전통시장에서 비닐봉지없는 명절 프로그램에 함께 하였는데요 청소년만의 톡톡튀는 아이디어가 좋은 활동이었던 기억입니다.

고양시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탄소중립 활동으로는 청소년탄소중립프로젝트, 친환경실천활동, 청소년채식동아리, 토당생태탐방, 지구시민활동, 환경지킴가족단, 세계물의를날 캠페인, 청소년환경숙의토론회, 환경실천, 청소년기획봉사활동, 청소년공정여행기획, 청소년자원순환교실, 청소년 자원봉사단 활동이 있으며. 이외에도 위 열거한 고양시 환경정책에 직 간접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세대는 어려서 환경교육을 안 받고 자랐습니다. 학습을 통한 교육이라 환경과 경제가 맞붙으면 경제로 슬그머니 마음이 옮겨가는 분들이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만 황세연박사님의 발제문에서도 인식과 활동이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보며 아직 환경이 몸에 배인 실천은 아니구나 생각해 봅니다.

환경은 후대에서 빌려왔다고 하지요. 우리보다는 청소년 여러분이 살아가야 세대라서 환경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후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인식하고 의원으로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위한 조례를 잘 살피고 만들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기후 활동 활성화

지역사회 청소년 기후 활동 활성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상진

1. 기후환경 -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 “불편한 진실”

- 호주산불, 홍수, 태풍, 미세먼지, 기후난민, 쓰레기섬, 플라스틱, 비닐봉지, 재생에너지, 빙하, 해수면 상승, 기름, 가스, 석탄 등 모든 매스컴에 올라오는 대표적인 키워드
- 이러한 키워드를 듣고 살면서도 나의 하루는 안 바뀌어
(플라스틱 물, 1회용 차, 물 틀어놓고 양치, 세수, 샴푸, 린스, 각종 화장품, 1회용 휴지, 물티슈, 아침식사 1회용 비닐, 자동차 타고 출근 등등등)
- 현재의 생활에 “익숙해 지는 것” 가장 끔직한 질병(교황 프란치스코)
- 청소년은 질병을 되물림 받는 자

2. 청소년 - 수혜자가 아닌 설계자, 문제해결의 주체 (교육의 대상이 아니다)

- 청소년은 현재와 미래 삶의 주체 인정
- 기성세대 보다 미래의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존재
- 기후변화 활동의 계획과 방법에 있어 권리로서 참여 당연
- 주체적 참여만이 성공적 해결방안 및 지속성을 담보

3. 청소년활동(기후환경) 방향 - 지역사회 직접적인 참여

- 청소년기관 시설 중심에서 일상생활 활동으로 전환
- 주어진 프로그램(수혜자)에서 참여 프로그램(설계자)으로
- 학교 - 교실을 넘어 청소년 생활(지역사회)속으로
- 소속된 학교, 지역사회와 다양한 환경문제의 발견 해결(실천) - 자발성, 재생산

4. 기후환경 문제의 해결방안은 - 연대와 실천

- 전 지구적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거대하고 방대함)
- 가치를 주어야 한다. (가치란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바람직한 것)
- 오케스트라 처럼 각자 자신의 역할을 기여 하는 것에서 출발 (ESD 체계성 확보)
- 코로나19와 기후환경의 가르침은 세계가 연결되었다는 것
- 연대와 실천은 “세상을 변화할 수 있다”는 신념
- 나의 삶, 우리의 삶을 위해 실천하며, 서로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미래를 만든다
- 그리고 이야기 해야 합니다. 믿음(희망)을 주는 이야기, 이야기와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전환점을 찾아야 합니다.

5. 진흥원(국립수련시설)의 청소년 기후활동 운영 사례

□ 국립시설 공통 활동

- (공동목표 설정) 국립청소년시설 6개소의 탄소중립 실천활동 공동 목표 수립 및 환경 활동 콘텐츠 공동 개발·운영
 - ※ 공동목표 : 탄소저감률, 참가인원, 활동 효과성 등
- (생활실천 활동) 모바일 app (행가래, sk c&c)을 활용, 활동 속 실천 미션 제공
 - ※ (예시) 식당 이용 시 잔반 줄이기, 시설 내 계단 이용하기 등의 미션을 수행하고, 모바일 App을 통해 인증(사진 등)
- (대국민 캠페인) 폐자원 선순환 재활용 캠페인(미니플라스틱 자원순환) 공동 운영
 - (수집·수거) KYWA 전사 및 대국민 대상* 미니플라스틱(병뚜껑 등) 수거
 - (업사이클링) 플라스틱 분쇄·사출기 활용 재활용품 제작(미니화분 등) 및 현장 활용 청소년활동 콘텐츠(동영상 등) 개발·제공

□ 국립시설별 특화활동

시설	사업명	프로그램	주요 내용
중앙수련원	자원순환 의식제고 「찾아가는 환경교실 “우리동네 징검다리”」	업사이클링 활동	- 생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커피박(찌꺼기), 양말목 등을 활용, 생활 속 소품으로 재탄생 하는 업사이클링
		환경탐사활동	- 자연을 직접 탐색, 관찰하여 생활 쓰레기와 오염정도 파악, 자연보호를 위한 실천 리스트를 작성
평창수련원	환경생활 실천의식 향상 「탄소중립 실천활동 “우리 지구하다”」	기후위기 탐색활동	- 기후위기 및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온라인 App기반의 6게임 활동을 통해 알아보고, 재사용 밀랍랩을 직접 만들어 보는 활동
		탄소중립 활동체험	-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직접 실행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자가발전 자전거, 업사이클링 등) 활동
우주센터	기후환경 의식제고 「기후변화와 지구환경 “ECO COSMOS”」	작은지구 만들기	- 물과 탄소의 순환과 지구 생명체의 탄생 조건을 알아보고, 유리병과 이끼 등을 활용하여 작은 생태계(테라리움) 제작해보는 활동
		S.O.S로 본 지구	- S.O.S. 장비(구형 프로젝터)를 통해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등을 알아보는 활동
		불을 끄고 별을 켜다	- 인공조명의 소등과 관측을 통해 빛 공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활동
농생명센터	환경 감수성 증진 「LED 식물재배 “힐링-팜”」	종자와 채식	- 종자(씨앗)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채소를 활용한 간단한 요리(팝콘 등)를 직접 만들고, 탄소중립을 위한 채식 식단을 계획해 보는 활동
		힐링 - 팜	- LED 식물재배기를 활용하여 반려식물을 키우고, 조명, 온·습도, 물 등에 따른 식물의 변화과정 등에 대한 관찰하기 - App 기반의 반려식물 일지 작성 및 내용공유

시설	사업명	프로그램	주요내용
해양 센터	해양환경 보전활동 「청소년 해양환경 교육 “결자해지”」	반려해변과 함께하기	- 경상북도와 연계 관리 인력이 파견되지 않는 비지정 해변을 가족을 입양하여 해변정화를 전개하는 활동(경주, 포항, 영덕, 울진 등 18개 해변)
		해양환경활동	-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환경 의식 제고 및 생활실천 활동 운영(플라스틱 다이어트, 업사이클링, 자원절약 실천 활동 등)
미래 환경 센터	친환경 굿즈 제작 「디지털드로잉 활동 “내가 그린 Green 그림”」	지구 이야기	- 지속가능 발전교육의 과제 중 육상생태계 보전,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주제로 한 기후변화 대응 토론 활동
		팝캘리 가치아트	- 디지털 장비(테블릿, 스캐너 등)를 활용, 다양한 디자인 요소(글씨, 그림 등)를 산출하고, 이를 친환경 물품(머그컵, 에코백 등)에 전사, 인화 하여 나만의 생활 용품을 제작하는 메이커 활동

6. 반성과 제언

- 지역사회란 일정한 지역에서 그 주민들 간에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공통된 문화(조직문화)를 가지며 그 공동체에 대한 일체감을 갖게 하는 삶의 터전. 따라서 지역사회는 일정한 지역, 주민, 공동체 의식을 그 구성요소로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 간담회나 공청회 또는 세미나나 토론회, 워크숍, 강연, 견학, 경진대회, 공모전, 교육, 연구조사, 대회나 행사 또는 캠페인, 모니터링이나 평가, 각종 자료 발간 등 대표적인 활동의 키워드
- 환경교육의 홍수, 1회성, 이벤트성, 보여주기식 경쟁 팽배 (저것 또해, 어디가서나 똑같아, 지겨워)
- 공적 조직 - 다른데서 안하는 색다른, 예산과 인력의 한계, 했다는 성과가 중요
-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 눈 쌓인 아파트 길 청소는 청소하시는 분의 몫. 많은 청소년활동, 행사, 이벤트는 실시했지만 지역사회 공동체는 돋보이지 않아. 지역사회 활동 중요성은 누차 강조 되었지만 우리들만의 잔치는 아닐까?
- 진정성 담아야, 한사람 한사람 소중함 인식서부터, 서로 절실하게 필요할 때, 서로 절실하게 고민할 때 지역사회 실천력이 담보되는 것
- 지역사회 기관단체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청소년 시민성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사회참여 접근 통로가 활성화 되어야 하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① 기후환경 볼런티어 활성화 (자발성, 주도성) -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시설, 사회복지시설 정비
- ② 세대간 협력 콘텐츠 발굴 - “동행 프로젝트”
- ③ 지역공간 재구조화(다자인 씽킹) - 학교공간 활용, 청소년카페, 공적기관 개방 등(공적 지원 확대 여건 마련)
- ④ 마을(아파트)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 - 공유공간 활용(마을 자치공간), 지자체 지원
- ⑤ 자발적 실천과 인증 체계 - 일상속의 청소년활동 체계화 (기후변화, 진로활동 등)
- ⑥ 기후환경 청소년단체 설립 제안 등

(참고자료) - 청소년기후행동 홈페이지에 발췌한 내용입니다

[청소년기후행동 첫번째 총회에서]

다른 세상은 가능합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마주한 청소년입니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지구 온도 때문에 불타는 숲, 물로 잠긴 마을, 하얗게 죽어가는 구상나무, 멈추지 않는 장마를 바라보다, 행동하기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기후위기는 유예할 수 있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다가온 현실입니다. 다양한 자연재해와 이상기후로 고통 받는 이들은 하루하루 늘어가고, 원래부터 존재하던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지구상 모든 인류를 위협하지만, 청소년인 우리에게 더욱 치명적입니다. 화석 연료에 의존해 번영을 누린 것은 이전 세대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세대로 대물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은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책결정권자의 자리에 오른 시점에는 기후위기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을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어지고 온갖 불확실한 위기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고, 해외에서 발전소 사업을 벌이고, 국민의 세금을 거기에 쏟아붓는 등 우리 모두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라면 결코 내리지 말아야 했을 결정들이 닫힌 방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결정에 우리는 정작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은 부당합니다.

나이주의가 질게 뻗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은 비정치적인 존재가 될 것을 요구 받습니다.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었으나 여전히 대다수 청소년은 정치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행 법은 청소년의 정당가입·선거운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많은 학교에서 학생의 정치적 활동과 집회 참여를 징계하는 교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목소리 높이며 거리로 나온 우리는 ‘학생답지 못하다’거나 ‘공부가 우선’이라는 말에 부딪히기 일쑤입니다.

한편, 우리에게도 또 하나의 상반된 반응이 따라붙습니다. 바로, ‘기특한 아이들’ ‘어른들이 미안하다’ ‘공부해야 할 학생들조차 거리로 나왔다’는 식의 보호주의적인 시선입니다. 이는 청소년을 함께 나아가야 할 동료 시민으로 대우하지 않고, 대상으로서 호명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와 같은 지향점과 목표를 가진 시민사회 내부에서조차 청소년을 운동의 주체로 존중하지 않는 문화가 일정 부분 존재합니다. 우리는 사회가 정한 청소년의 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방향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이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는 기후 운동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과학자나 정치인이 된 후에 비로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대신, 지금 여기서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청소년 기후행동의 우리들은 다른 세상을 위해 틀을 깨고 대담한 전환을 그리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역사회 환경교육-청소년 활동 연계

지역사회 환경교육-청소년 활동 연계

김 인 호(국가환경교육센터장)

청소년 환경교육 특히, 탄소중립교육이 필요

- 우리가 맞고 있는 이 시대의 최대 과제는 기후위기 극복이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를 풀어야 한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오던 편익과 풍요로움을 상당 부분 포기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가능하다. 그야말로 경제, 사회, 교육, 생활, 인식, 그리고 가치관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임
-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새로운 교육체제의 구축 역시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환경교육과 환경실천행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모든 국민들의 환경학습권¹⁾ 보장으로 환경 인식개선과 사회적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음
- 기후위기,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의 효과적 수단으로 환경교육의 강화 목소리가 증가하는 등 국민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나선 청소년들의 결석시위, 헌법소원 등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공유 및 학습권리를 주장하고 기후위기 방관은 위헌이며, 미래 세대의 생명권과 환경권 침해에 대한 요구가 상존하고 있음.
- 개인의 실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개선과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는 환경교육 확대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환경교육도 파편적인 지식 위주의 교육만으로는 복잡한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환경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국가 정책에 적극 참여·실천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형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또한,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을 위해 생각과 행동양식의 총체적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으로, 생태전환교육이 모색되고 있다. '전환적 삶을 실천하는 생태시민 육성'을 목표로 하는 생태전환교육은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에 부합하는 교육과정과 학교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도 배경과 교육과정 구성에 개후 생태환경 변화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기후위기 등 환경 변화로 인한 영향을 오래 받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해 새로운 지식, 가치, 태도를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세대이기 때문에 청소년 환경교육 특히, 탄소중립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함, 특히, 생애주기 맞춤형 환경교육 측면에서 청소년기는 생태비전 키우기를 강조하고 있는 시기임

1) 환경학습권은 환경권과 학습권을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일종의 기본권으로,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의 시대에 환경에 대한 알권리와 환경에 관한 의사결정을 실현하기 위해 바탕이 되는 권리이다. 환경학습권은 기후불안으로부터 벗어날 권리, 삶과 연결되는 환경교육을 누릴 권리, 기후위기 당사자로서 알 권리, 그리고 참여하고 결정할 권리, 배우는 사람으로서 존엄할 권리를 포함한다. 환경학습권은 2022년 1월 6일자로 개정된 환경교육법 목적(법 제1조)에 제3차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2021~2025) 비전에 반영하여 환경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청소년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조사 사례

1) 국가환경교육센터 청소년 기후환경 인식 조사²⁾

- 조사는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환경·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¹⁾을 조사하였으며 일반 학교와 꿈꾸는 환경학교 사업 참여 학교와의 집단 간 차이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도별 추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환경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관련 질문에서는 환경 문제를 위한 환경 행동이나 청소년기 후위기 행동에 참여하겠나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 정책에 대해서는 ‘자기가 먹은 식판 스스로 설거지하는 정책’을 제외하고 모두 찬성의 비율이 높았음. 특히 환경 지식 질문에서는 IPCC와 그레타 툰베리 관련 질문의 정답률 평균은 약 30.0%인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적으로 위협적인 인식은 ‘폭행, 폭력에 대한 위험’과 ‘전염병 감염 위험’이 높았으나,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 위험’에 대한 응답 비율(30.3%)은 2020년(26.6%)과 2021년(17.9%)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청소년이 인식하는 환경과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불안감’을 바탕으로 ‘분노감’, ‘무력감’, ‘죄책감’, ‘당혹감’ 등을 함께 선택한 사람이 많았는데, 2022년의 결과에서 참여와 실천 의향이나 실제로 느끼는 것들이 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한 위험을 감정적으로 느끼고 인지하고 있었으나 2020년과 2021년에 비해 다소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음

표 1. 기후위기에 따라 나타난 청소년의 감정 응답 결과

문 항		2022		2021		2020		3개년 평균
		(명)	(%)	(명)	(%)	(명)	(%)	
불안감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어떤 재난이나 위험이 닥칠지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하다	469	58.6	467	59.1	648	61.1	59.6
무력감	나의 개인적인 노력은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데 소용이 없는 것 같아서 무력감이 든다	190	23.8	206	26.1	229	21.6	23.8
무관심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는다	167	20.9	137	17.3	188	17.7	18.6
당혹감	기후변화는 걱정스러운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혹스럽다	165	20.6	176	22.3	241	22.7	21.9
분노감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집단, 국가, 기업 등에 대해 화가 난다	160	20.0	194	24.6	247	23.3	22.6
죄책감	나의 삶의 방식이 기후변화의 원인(온실가스 등)을 제공한 것 같아 죄책감이 든다	160	20.0	158	20.0	210	19.8	19.9
우울감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 우울하고 절망감이 든다	106	13.3	92	11.6	129	12.2	12.4

2) 공주대학교(2022.12), 청소년의 환경·지속가능발전 인식조사 최종보고서, 국가환경교육센터

- 기후위기와 그로 인한 환경재난 등이 현실화되면서 지구 전체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국내외적으로도 탄소중립사회를 향한 전환의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으나, 학생들의 응답 결과에서는 이러한 변화 추세와 동조하는 경향을 거의 발견할 수 없었음.
- 청소년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여 환경의식이나 관심이 낮다는 기존의 연구들을 참조하여 청소년들의 기후환경소양을 높이기 위한 각별한 조치가 필요함을 제시함

2)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청소년 조사 내용

-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실시한 성남시 만 15세 ~ 34세의 청소년, 청년 1,105명을 대상으로 한 기후위기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84.0% 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의 현실화 시기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는 비관적인 인식이 절반 이상(52.5%)을 차지함



그림 1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도 + 기후변화 문제 현실화 시기

- 기후변화 관련 용어에 대해 탄소중립(54.9%), 그린뉴딜(43.4%), 자원순환(39.2%), 파리기후협정(31.0%) 4개 용어에 대해 30% 이상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용어에 대한 문해력(literacy)이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향후 청소년, 청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소양을 높이기 위해 생애주기 맞춤형 환경교육 활성화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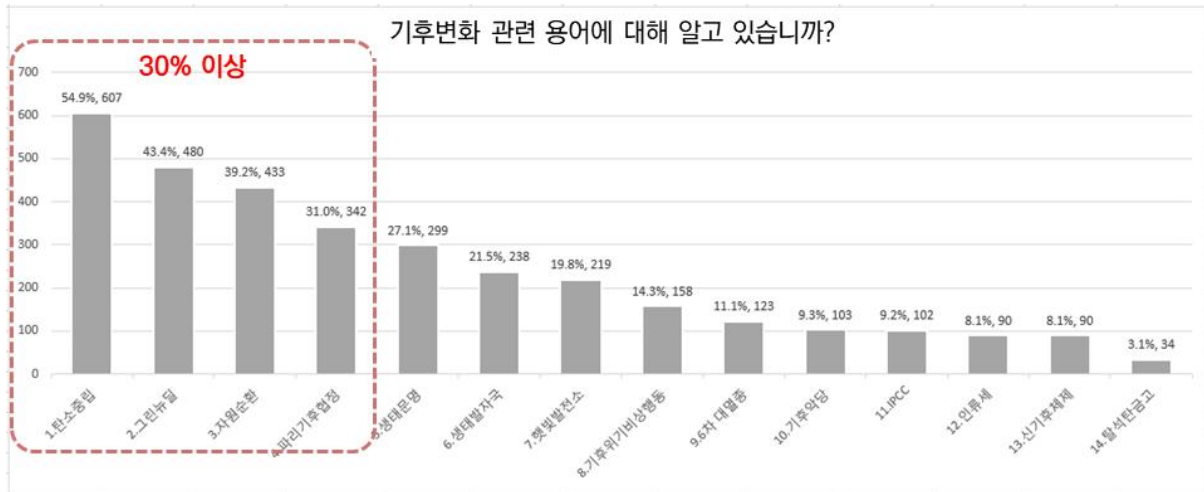


그림 2 성남시 청소년 청년 기후변화 관련 용어에 대한 인식도

-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삶의 양식 전환할 의향에 대해 59.2%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기후위기, 환경재난 등의 환경문제해결을 위해 청년들이 삶의 양식 전환을 위한 교육과 실행프로그램들의 제공이 필요하며, 환경문제해결과 환경보호를 위해 시민 각자가 가장 책임이 큰 주체라고 응답하였음, 시민 개개인의 실천 계기를 확대하고 실천을 구체화하고 활성화를 위한 환경교육과 환경정책 강화가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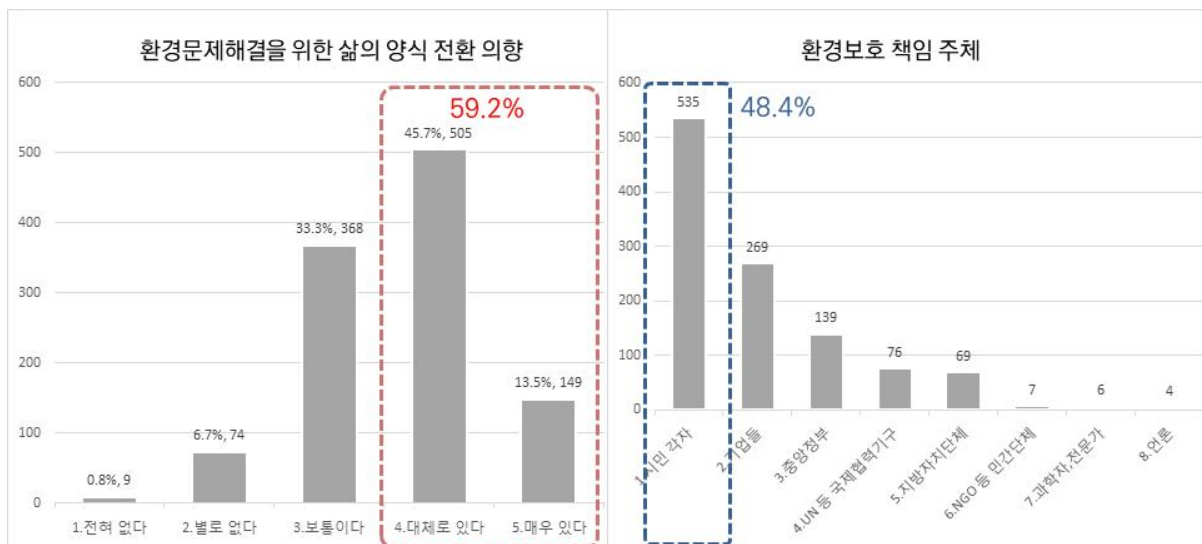


그림 3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삶의 양식 전환 의향 + 환경보호 책임 주체

청소년 분야와의 환경교육 연계 활성화

- 환경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청소년 분야와 연계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지만 더욱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수련원이 기초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되어 있는 사례가 2022년 12월 현재 서울지역은 3개 기초자치단체(영등포구, 구로구, 서대문구)³⁾, 경기도에는 2개 기초자치단체의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되어 역할을 하고 있음.
- 또한, 청소년시설(수련관·원)의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15개의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지정되어 있으며, 청소년시설은 아니지만 공공기관, 환경단체, 기업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운영하는 우수 환경교육 지정프로그램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다만, 청소년시설(수련관·원)의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주제가 기후위기, 탄소중립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향후, 청소년의 기후환경소양을 높이고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위한 문제해결형 프로그램의 도입이 시급함

표 2 청소년시설(수련관·원)의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현황(5개소), 2022년 12월 현재

광역시	지역	센터명	기관명	비고(보유 지정프로그램)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 환경교육센터	시립문래청소년센터	0건
서울	구로구	구로구 환경교육센터	구립공동청소년문화의집	0건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구 환경교육센터(1호)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1건
경기	부천시	부천시 지역환경교육센터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4건
경기	안산시	안산시 지역환경교육센터	(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	4건

표 3 청소년시설(수련관·원)의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현황(15건), 2022년 12월 현재

광역시	지역	기관명	프로그램명	교육주제
서울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허브는 선물이다	생태계
경기	부천시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4건)	산울림 개구리 학교	생태계
			산울림 꿀벌학교	생태계
			산울림 잠자리 학교	생태계
			원미숲 보물찾기	생태계
	안산시	(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 (4건)	제로폐기물	자원순환
			에코 그라운드	생태계
			에너지플러스	에너지
			푸른하늘! 맑은공기! (미세먼지 바로알기)	공기
충남	천안시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3건)	판교 그린네트워크	생태계
			EA2TH 1안고(얼싸안고) 충전완료	기후변화
			앞서가는 지구인, Green up!	지속가능발전
			스트레스 ZERO, 우린 지금 숲으로 간다.	생태계
전북	김제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2건)	불토(seastar-soil)	토양
			청소년환경활동가	지속가능발전

3) 2022년 12월 현재 서울시 기초환경교육센터는 25개 자치구 중 12개 자치구에 13개(서대문구가 2개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함)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3개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청소년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음

- 청소년 분야와의 환경교육 연계 활성화 방안을 3가지 측면에서 제안함
- 첫째, 정책연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국가환경교육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과 청소년의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위한 공동 정책연구와 포럼을 통해 상호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환경부의 다양한 환경교육정책 사업과 관련하여 청소년 분야와 협력방안을 도모할 수 있음, 청소년기관 대상의 환경동아리, 환경교육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을 검토할 수 있음, 또한,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의 진입 기회도 확대하고, 청소년 대상 탄소중립 생활실천 교육프로그램을 좀더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함
- 둘째, 사람 연계가 제도와 정책 연계 못지않게 중요한데, 인적자원 교류 측면에서 환경교육사와 청소년지도사 협력 워크숍을 개최하고, 청소년지도사 대상으로 환경교육사 자격취득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청소년지도사 대상으로 탄소중립교육, ESD교육 등을 주제로 한 보수교육과 연수프로그램 제공도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셋째, 지역기반 연계는 오히려 중앙보다 실효성이 있는 성과를 도모할 수 있는데, 청소년시설을 기반으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진입 유도, 활성화와 함께 최근 환경교육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⁴⁾에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시설이 도전하여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시나리오임



그림 4 환경교육과 청소년분야의 연계 활성화 방안

4)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_〈환경교육법 시행령 제14조〉 환경교육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설립 목적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환경교육사 1명 이상을 상시 고용할 것

청소년기관 ESG경영으로 재구조화 하다

청소년기관 ESG경영으로 재구조화 하다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장 윤여송

청소년기관의 ESG경영에 대한 사례를 의뢰 받았을 때 부담백배로 원고 마감시간은 다가오고 기본 지식을 얻기 위해 다른 기관을 사례들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청소년기관에서 기후, 환경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고 외부환경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기관에서도 재단, 협의체에서는 선도적으로 청소년기관 ESG경영을 선포하고 기관별 협력추진을 하고 있다.

○ 청소년기관의 ESG 경영 사례

- 경기도청소년재단협의회 청소년재단“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ESG경영 캠페인” 진행 (수도권일보. 2022.12.08.)
- (재) 군포시청소년재단, 제4의 공간과 ESG 경영실천을 위한 업무체결 (뉴스와이어2022.11.22.)
-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특례시(고양시청소년재단,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재단 인프라 구축을 위한 ESG 경영선포(경기청소년신문 2022. 11. 16)
- (재) 안산시청소년재단 ESG 경영가치 실천위한 사랑의 헌혈캠페인 (한국방송뉴스. 22.6.13)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들과 ESG 가치기반 프로젝트 진행 (이코노믹 2021.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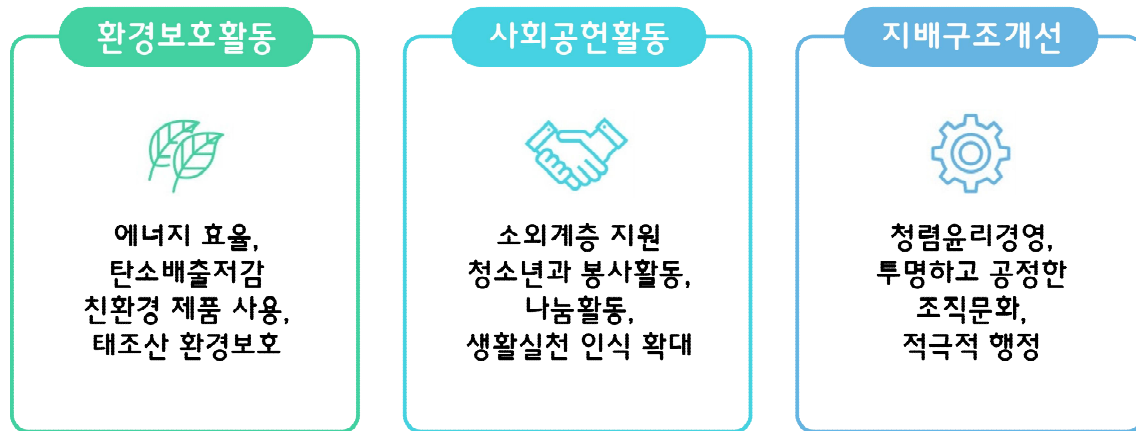
이와 같이 청소년기관, 재단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ESG경영을 실천해 오고 있다.

앞서 황세영 연구원님의 청소년대상 청소년기후변화 인식조사에서도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경험에서도 1. 가정에서의 일회용품 줄이기, 2.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 줄이기 3. 등하굣길에 대중교통 이용하기 4. 지역환경개선 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생활환경인 가정과 활동환경인 수련시설이 함께 연속선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기후변화의 문제해결을 노력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관련 기관에서도 기후위기, 환경을 위한 노력들을 다시 재구조화하여 발표하려 한다.

태조산청소년수련관 ESG 경영



□ 청소년기관이용 청소년실천

○ 에너지 절약

- 난방온도 2도 낮추고 냉방온도 2도 높이기 “사용하기 않는 활동 난냉방 끄기
- 청소년카페 및 사무실 냉장고 60% 적정용량 유지하기

○ 소비

- 동아리 활동시 다회기 이용식당 안내로 1회용 쓰레기 줄이기
- 청소년동아리 간식 구입시 과대포장 제품 안사기

○ 수송

-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 자원순환

-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실현하기
- 종이타월, 핸드드라이 대신, 개인 손수건 가지고 다니기
- 활동시 텀블러 가지고 다니기

□ 청소년기관 청소년지도자 실천

○ 에너지 절약

- 난방온도 2도 낮추고 냉방온도 2도 높이기 “사용하기 않는 활동 난냉방 끄기
- 창문틀과 문틈 바람막이 설치하기
- 활동장의 콘센트 대기전력 차단하기
- 고효율 가전제품, 노트북, 빔 사용하기

- LED 조명으로 교체하기
- 사무실 사무용품 절전기능 사용하기
- 빈활동장 조명은 소등하기

○ 지속가능한 소비

- 급식 및 음식은 먹을 만큼만 요리하고 담기
- 안 쓰는 물건 나눔 하기

○ 자원절약과 재활용

-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을 실천하기
- 종이타월, 핸드드라이어 대신 개인 손수건 사용하기
- 회의, 보고자료 이면지 사용, 종이사용을 줄이기
-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하기

○ 자연보호 활동

- 수련관내 나무를 심고 가꾸기
- 산림보호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독 예방활동 하기
- 청소년, 단체 자원봉사시 나무 구역별 지원으로 지속적 관심을 갖기

□ 청소년기관 프로그램 실천사례

- 자유학기제 주제별 선택 수업 환경 프로그램 운영 “프리마켓 활용” 40여만원 사회취약 계층 기부금 지원
- 청소년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청소년들에게 3분 “탄소중립 생활실천 다짐” 교육
- 청소년카페 자유공간 음료제공후 남은 우유각 세척후 주민센터에 생활용품 교환후 기부

이렇게 태조산수련관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다시 ESG경영으로 재구조화하고 청소년들과 함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